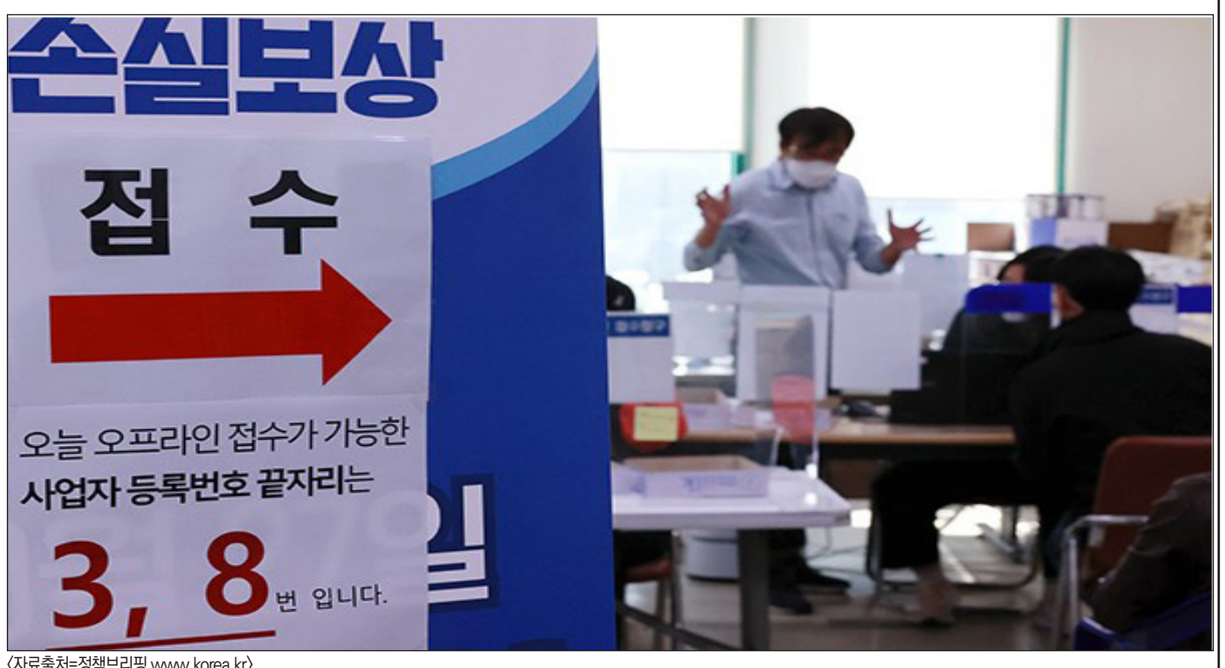
문화여성

문화매일

제1140호 2021년 112월 6일 월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내년 예산안 607조 국회 통과…소상공인 집중 지원

정부안보다 3조 3000억원 순증…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상향·지역화폐 증액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 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재정수지개선 1조 5000억 원 개선되고 국채는 1조4,000억 원 줄어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1조 5000억 원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낮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 업종 맞춤형 지원을 10조 1000억 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35조 8000억 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인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으로 지원(+4,000억 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을 위해 1조 4000억원을 보강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4,000억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1만 4,000개 확보(+4,000억원), 진단검사 일평균 31만 건(+1,300억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누리보육료 단가를 2만원 높여 기관보육료를 8%로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늘리고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 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을 추가해 지방재정 대폭 보강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조세분석과(044-215-4120)

최광수/기자

광주광역시·전남도 "초광역 협력으로 상생발전" 합의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초광역 협력 사업 등 9건의 신규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양 시도는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차기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전남'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은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호남RE300 구축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등 4건이다.

이 밖에 ▲남도 달밤 예술여행지 육성 ▲2038아시안게임 및 COP33 유치 협력 ▲국가균형발전 제도개선 공동협력 등도 신규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시·도는 당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발표문에 담았다.

국정과제인 국립심뇌혈관센터를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단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등 광주·전남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중요 국방시설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전남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생태·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에도 뜻을 함께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힘을 한데 모으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전남으로 도약해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과 광주는 지난해 12월 상생발전위원회 이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통과, 코로나19 감염병 공동대응, 초광역 협력사업 공동발굴,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에 함께 대응하고, 양 시도의 동반성장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상생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그동안 55개 협력과제를 발굴해 34개의 과제를 완료했으며, 계속 추진 중인 21개의 과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김덕윤/기자

제3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 개막, 기후위기 대응 다양한 프로그램 눈길

기후위기 국내외 전문가 세션으로 국제포럼 진행

경남도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혁신적, 공동체적 해법'을 주제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와 경남도청에서 제3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람과 공동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를 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되짚어보는 행사다.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포럼 개회식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영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이찬원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김경훈 창원대학교 교학부총장, 강재관 경남대학교 산학부총장, 김범근 인제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허신도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이 참석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개회 인사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해법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노력과 실천이 모이는 것"이라며, "경남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의 힘들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제포럼 프로그램]

국제포럼은 2일 ▲(특별세션1) 기후위기에 맞서는 경남 청소년 영상, ▲(기조세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혁신적, 공동체적 해법, ▲(세션1) 도시와 삶의 전환, 3일 ▲(특별세션2) 국제청년혁신가 경남지역문제 현장사례연구 발표, ▲(세션2) 로컬에너지-공동체가 만드는 전기, ▲(세션3)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세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혁신적, 공동체적 해법

요르고스 칼리스(giorgos kallis)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 교수와 카이사-리타 코스키넨(kaisa-reeta koskinen) 핀란드 헬싱키시 기후중립단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헬싱키시 사례로 예를 들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로컬공동체와 탈성장 과제, 로컬공동체 기반 연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경남이 고민해야 될 과제와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요르고스 칼리스 교수는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야만 기후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역설하면서, 보편적 돌봄소득 지급, 주4일제 실시, 공유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대안적 정책과 사례를 제시했다.

카이사-리타 코스키넨 단장은 헬싱키시 2030 탄소중립계획을 소개하면서 2019년에 세웠던 2035년 탄소중립도시 목표를 5년 앞당겨 2030년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소통,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 등 사회혁신적인 방식을 접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부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 탈내연기관, 식생활 전환 등 기존의 경제사회시스템에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는 공동체와 지역을 보호하면서 지역기반 에너지와 순환경제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역공동체가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과 감축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회복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세션1) 도시와 삶의 전환

케르코 반하넨(kerkko vanhanen) 포럼비리엄 헬싱키 총괄과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핀란드 헬싱키의 스마트도시 '칼라사타마'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의 비전에 관하여 발표한다.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와 시민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 (세션2) 로컬에너지-공동체가 만드는 전기

슈테판 그생어(stefan gsänger) 세계풍력에너지협회 사무총장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성일 신용보증기금 선임차장이 '지역공동체 에너지'의 전 세계 사례, 국내 상황과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경남의 마을공동체와 도민들이 에너지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생산과 소비를 책임지는 주체로 전환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 (세션3)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프레레릭 모흐(frederick moch) 독일노총 정책단장과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오기형 금속노조 부장이 독일의 사례와 경남의 상황,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경남의 산업전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한 노동의 대응과제를 논의한다.

▲ (특별세션1) 기후위기에 맞서는 경남 청소년

도내 청소년 환경동아리인 ▲사회참여동아리 아리아리, ▲문화봉사동아리 '나눔', ▲p.t.p(people to people), ▲잇츄, ▲제14기 브릿지 투더월드 기자학교가 참여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 영상을 소개한다.

▲ (특별세션2) 국제청년혁신가 경남지역문제 현장사례연구 발표

창원대 학생과 스페인 몬드라곤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10개팀이 지난 11월 경남 지역문제 사례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영상으로 발표한다.

[사회혁신 박람회 프로그램]

사회혁신 박람회는 3일까지 도청 신관 대강당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남의 기관·단체, 주민들의 활동 사례 영상과 적정기술 전시·체험 등 현장관람이 가능하다. 누리집에서 3d 온라인 기후위기 대응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박람회 상징물로 수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적정기술의 대표 사례인 와카 워터 탑(warka water tower)이 설치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기후도민회의가 개최되며, 이날 오후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서울환경영화제 그린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영화 '2040',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레시피'를 상영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오는 15일까지 네이버 제페토 '경남도청 메타파크'에서 기후위기 ○× 퀴즈 풀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 말풍선 달기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한편,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는 지난해 1월 제1회 '산업위기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 전략', 그해 10월에 제2회 '코로나 19, 로컬 민주주의'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됐다.

윤광남/대기자

세종시, 내년 국비 1조 1,965억 원 최종 확보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 성과를 올리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시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중 세종시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결과, 행복청 예산안 4,038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1,96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행복청 예산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38억 원을 제외하면 올해 6,111억 원보다 29.7%가 늘어난 7,927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시는 정부예산안에 제외된 주요사업 중 반드시 반영돼야 할 현안사업을 선정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

특히 강준현·홍성국 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예산심사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 가운데서는 충남대·공주대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사업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4-2생활권 부지에 조성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 내 충남대 세종캠퍼스 건축비 327억 원과 공주대 세종캠퍼스 건축비 280억 원이 확보돼 오는 2026년 개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사용 중인 세종경찰청과 관련해서도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비 1억 원이 반영돼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청사 수영장·풋살장 등 복합편의시설(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예산 13억 원이 증액됐고, 내년 일부 준공예정인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비 12억 원도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됐다.

이외에도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 3,102억 ▲행복도시 ~ 조치원 연결도로 공사비 257억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18억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 64억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건립비 20억 ▲신흥리 운동장 조성 36억 등 주요 사업이 감액 없이 원안 의결됐다.

시가 요청한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상당수 확보됨으로써 행정수도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복지기반 확충 등 시정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시 출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시정 핵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 편성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농가 및 농민수를 살펴보면, 2015년 경기도 농가수 126,679가구에서 2020년 경기도 농가수 120,979가구로 2015년 대비 5,700 가구 감소하였고, 2015년 경기도 농민은 350,200명에서 2020년 경기도 농민은 308,677명으로 2015년 대비 41,523명 감소하였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관열 의원은 농업은 식량안보 ·생명산업이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2022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은 780억2,554만원, 도내 광주시 ·하남시 등 17개 시·군지역(농민 244,700명)의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 연 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0억원 감액된 것에 대하여 아쉽다"면서 연 농가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조혜영/기자

부천시, 공동이용시설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로 도시재생 지원 강화!

부천시의회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지난 11월 29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 대상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스스로 마을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제2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으며,제18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활동'과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추가로 규정했다.

김주삼 의원은 "특히 소사지역 거점시설로 조성한 소사공간 위탁운영 단체로 소새마을기획단협동조합(일명: 소마단)이 선정되어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담은 도시재생 참여 유도와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마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김주삼, 정재현, 이학환, 이상열, 남미경, 김병전, 김동희, 박정산, 김성용, 최성운, 박명혜, 송혜숙, 이상윤, 권유경, 박순희, 홍진아, 김환석, 윤병권, 박찬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윤용민/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역북2근린공원 내 공동주택 등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와 중앙공원 현충탑을 신설 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현 위치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해 역삼지구 내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최우선 으로 선정할 것과 공원 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공원 정책과 관련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도시자연공원 쉼터 조성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사업명 결정 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을 조성·제공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원 조성 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정비 명령 불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흥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 수도관, 화장실, 벤치·파라솔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보완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부채납 받는 공원에 대해 부지 적절성, 실효성, 접금성을 고려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관 인허가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하고, 영덕1근린공원(민간 특례사업) 소음 민원 해결 및 작은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 조속히 완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덕1근린공원(민간 특례사업)과 인접한 덕영대로 2077번 길에서 하갈동 방면 차선 확장 및 인도 개선을 위해 관련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공원 도시계획시설의 2027년 실효를 대비한 난개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것과 기흥호수공원 주차장 확장, 횡단교 데크 연결 등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 정상 착공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한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규 공원 조성으로 수지구 근린공원 면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성 및 관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처할 것과 각 공원별 접근성 평가 시 현실성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이륜차를 포함해 자동차 불법 변경에 대한 시민 신고가 용이하도록 안내 및 단속 계획 마련 검토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의 노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물 샐 틈 없는 예산안 심사 이어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월1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12월2일 건설도시국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국비 지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국비 지원을 통한 SOC 확충을 당부하는 한편, 지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용역비와 홍보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면서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항건설 업무추진을 강조했다. 홍보를 위한 행사, 포럼·토론회 개최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중심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도민들께서 공공재정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집행부는 도민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회 변화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봉금/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주요 문화 사업지 현장방문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송혜숙) 소속 위원들이 제255회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3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장방문은 △부천아트센터 △한미재단 사일로를 차례로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부천아트센터(지하2층, 지상5층)는 부천시청 부지 내에 총 1,103억원(도비 40억원, 시비 1,063억원)을 투입해, 대공연장(1,445석), 소공연장(304석), 리허설룸을 갖춘 클래식 특화 공연장으로 조성되며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청 잔디광장, 중앙공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이 가능하고 미디어파사드 연출(내부의 빛을 활용해 일관성 있는 경관을 구현) 등 공연 이외에도 시민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될 계획이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위원들은'△지역과 상생하도록 관내 업체,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협치 및 의무 구매 △음향시설, 의자 등 시설가변에 따른 문제점과 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 △주차장 확보, 스피커 및 레코딩시스템 등 시설 보완 대책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짜임새 있는 활용성 제고 등' 시민 수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두 번째 방문지로 '부천 한미재단 소사4-H 훈련농장 사일로'를 방문했다.

소사본동 364-6에 위치한 '부천 한미재단 소사4-H 훈련농장 사일로'는 1964년에 건립된 근현대사의 기록물이며, 시멘트벽돌 원통형 구조물의 가축사료 저장고로 외관에 한미재단 표식이 있다.

2019년 9월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제238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 한미재단에 대한 역사적 가치 보존성을 최초 주장했으며, 농촌재건과 농업기술 근대화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문화유산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사일로는 문화재 기록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변 기숙사나 축사 등 부속건물은 철거가 불가피하여 당시 시대 상황을 기념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사진, 역사자료, 미니 조형물 구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은 "재정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부천을 문화특화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기술연구원 예산 현실화하고 지천르네상스사업 전액삭감

소방 비시급성 예산 일부 감액하고 소방차량 교체 및 구조장비 보강 등 시급예산 증액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지난 12월 1일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현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합리적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회복시키고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급성이 낮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의 예산안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했다"며 심사소회를 함께 전했다.

안전총괄실 예산안 중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난 8월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출연동의안의 출연금 214억 24백만 원보다 53억 65백만 원이 일방 삭감된 158억 59백만 원만 편성함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고유업무인 연구비가 전년 대비 약 18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자체가 마비될 지경에 놓였다면서 18억 원을 증액하여 현실화하였으며,

반면에,'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사업은 자치구와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와 자치구 간 매칭이나 보상협상 등이 원활치 않았던 점을 들어 추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전제로 편성예산 437억 원 중 350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비시급성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물순환안전국 예산안 중 지천르네상스 사업의 세부사업인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16억 4천만 원,'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13억 8천만 원,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13억 8천만 원 등 3개 사업 44억 원과'덕수궁 돌담길 옛물길(정릉동천)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민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설익은 사업임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하였고,

반면에, 2005년 개장한 청계천의 경우 복원 후 16년이나 흐른 지금까지 매년 100억 원 내외의 유지관리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계천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관련 조직진단과 업무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청계천 유지관리 체계 효율화 방안'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인 만큼 소방재난본부의 비시급성 예산 43억 46백만 원을 감액한 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억 2천만 원 증액,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5억 14백만 원 증액,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3억 22백만 원 증액,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8억 27백만 원 증액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총 43억 46백만 원을 증액하였다.

성흠제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안이 시민들의 혈세로 편성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간과한 채 서울시가 정치적 대립의 이용물로 전락시킨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가급적 절제된 마음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피력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입주민 대표들과 광교 송전탑 이전문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는 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 주재로 광교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문제에 따른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정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사업은 용인시 주민들의 경관 저해 등의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는 이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로써 이전공사에 대한 시행사를 선정하고 동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를 토대로 조만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공사는 광교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500m거리에 있던 송전탑 3기에 대하여 2011년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 이설을 요구했으며, 2012년에 송전탑을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기기로 결정되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작년 11월에 착공 계획을 밝힌바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이 잘 해결되었는데 이는 지역의원이신 양철민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신 덕분이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양철민 의원은 "지난 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송전탑 이전문제는 조속히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었는데 이제라도 추진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참고 인내한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추진에 대하여 계속 지켜보며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영/기자

전북도의회예결위도교육청2022년본예산안심사시작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지난 4일간 전북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12월 3일 3조 8,626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류정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건강 보호와 학습결손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교육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환경개선사업 만큼은 일선학교에 혼선이 없도록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국세 세입 증가 등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낙후된 학교가 없어야 됨을 당부하고, 학교가 예전부터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19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체육시설 미개방 지침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민의 개방사용 요구가 거센상황이므로, 정부가 백신 접종률 제고로 위드코로나 방침인 만큼 교육청도 일상 회복을 위해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전주의 학교 수가 부족하여 도시권의 학생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작은학교 살리기'에 치중하여 오히려 도시권이 폐교되는 사례가 있다며 도내 상황에 맞는 유연한 학교설립과 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정호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보면 2018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나 2021년에는 단 한곳도 우수평가가 없어 사업추진에 안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 교육감의 임기말까지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전북교육청의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2017년 이후 하락하고 최근에는 완주교육청 횡령사건, 감사관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은 감사관의 갑질문제로 감사관이 업무배제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교육청의 처리가 미진함을 질타하고, 최근 ○○유치원 교사가 자살까지 시도하는 심각한 상황이나 교육청의 대처가 안일함을 지적하고, 일련의 사태가 교육청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한 결과임으로 교사 등 교육종사자의 인권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여 교육청 차원의 개선 노력을 권고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나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진입로 폐쇄로 교육권에 침해를 받고 있어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학교시설 개선사업비와 증개축 관련 2022년 예산편성 현황을 묻고 증개축이 안전등급과 내구연한 등에 따라 진행되나 일부 학교의 건축물이 내구연한은 오래되었으나 안전등급상 증개축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증개축을 위한 교육청의 내부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나기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완주교육지원청 공금횡령 사건의 진행상황과 횡령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묻고 회계업무담당공무원의 자질함양 교육, 회계업무 상급관리자의 회계관련 의무 연수 확대, 일상경비 감사 실시 등 관리·감독을 위한 업무시스템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문하고, 전북교육청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진입로 폐쇄로 원격수업이 진행 중인 전주 예술중학교 학생들이 최근 기말고사 등의 시험을 위해 해당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으나, 화장실 등 편의 시설 미비로 학부모 및 학생들이 대체 가능한 시설마련을 당부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등교 학생 등이 상처를 받고 있어 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함을 질책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합 진행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김송일/기자

충청남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 지원 온 힘

양승조 지사, 아산시 방문…각계 도민과 미래 발전 전략 등 논의

양승조 지사는 3일 민선7기 4년차 시군 방문의 일환으로 아산시를 방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아산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오세현 아산시장과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사회단체장,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도정 보고와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가 아산시에 지원한 주요 사업으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KTL 바이오·의료 종합 지원센터 연계 사업 △차량용 반도체·자율주행 R&D센터 신축 △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아산시 명품 트레킹길 조성 △지방하천 정비 △도시재생사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음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을 보고했다.

이어 아산시가 미래 발전 전략 및 과제로 설정해 추진 중인 △온천 재활헬스케어 힐링산업 실증센터 구축 △수면산업 실증 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재생·재건 산업 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 사업 △고위험 감염병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공정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추진 △천안-신창역 셔틀 전동열차 운행 추진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조기 준공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 △아산 탕정 해제지역 신도시 재추진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설립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아산-천안 고속도로 조기 준공 등 아산시 현안 사항에도 행정력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민 건의 사항인 △인주중학교 통학로 개선 공사 △지방도 623호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개설 조속 추진 △인주면 공세1리 배수로 정비 △온영중로 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검토 후 지원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지사는 "아산은 국가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집중돼 있는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아이콘으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앞으로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실증센터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산업 고도화를 통해 아산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며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의 중심도시로 그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아산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행복한 충남'의 주역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했다.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양 지사는 노인회관과 보훈회관을 잇따라 방문하고, 청년 정책 현장을 찾아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지회장 오치석)를 찾은 자리에서는 어르신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보훈회관에서는 이성진 특수임무유공자회 지회장 등을 만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의 대화는 배방읍에 위치한 청년아지트 '나와유(YOU)' 배방점에서 진행했다.

아산시 청년위원회와 청년기업협의회, 공유오피스 입주 기업 대표, 4-H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대화에서 양 지사는 정책 역량을 집중,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남진복 도의원, 울릉주민 해상이동권 보장에 팔 걷어 부쳐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제327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울릉주민과 방문객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에도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별하게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 1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지난 9월 취항한 전천후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연중 결항없고 멀미없이 울릉도와 독도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윤봉금/기자

대전시 노·사·민·정, 2022년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방안 토의

대전시는 12월 3일 14시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위해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 9월 설치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 현안 의제 발굴 및 사업추진, 각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에는 주민발의를 통한 노동기본조례 제정과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 우리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등 안전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사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허태정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를 높이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 했다.

김원호/기자

서울시, '담배없는 아파트' 우리 손으로…145개 단지 '주민주도 금연캠페인'

25개구 145개 아파트 주민참여 '금연문화조성 캠페인' 실시, 전 공동주택 확대 추진

서울시는 아파트 내 흡연민원 해소와 흡연·비흡연 갈등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환경을 만드는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145개 단지부터 시작해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민주도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3,779개 중 사업참여를 희망한 145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주도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전체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통해 지정해 나가고 있으나, 금연아파트 지정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세대 내, 또는 다른 공간의 흡연민원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로 지정 신청을 한다.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외 거주민의 참여를 통한 이해와 공감 기반의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주민참여 공동주택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별로 '주민자치 금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위원으로 참석해 공동주택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캠페인 방법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보건소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시 차원에서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물품(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팻말 등)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는 입주민 참여 현장 캠페인이나 이벤트도 지원한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145개 공동주택별 금연추진위원회 간 전체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최신 금연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활동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우수사례를 각 자치구 및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단지에 공유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대상 흡연예방 교육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공동주택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과 연계를 통해 가정 내 흡연자의 금연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 주민 대상 금연지원 및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등 절충 방법을 통해 세대 간 흡연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내 영유아 및 임산부, 노약자 등 건강보호 대상자들을 비롯, 비흡연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법적 규제보다 시민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캠페인을 확대하겠다. 주거지역 내 어린이 등 간접흡연 노출을 차단하고, 주민 이해와 합의를 통해 갈등없이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대문구, 학교 현장의 목소리 듣고 지원 계획 세운다

서대문구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교육 현장 내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를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는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왔지만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구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설문 항목은 기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초중고교별 만족도, 교육환경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희망 분야, 제안 및 개선 사항 등 총 17개로 이루어져 있다.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교육'으로 검색)을 참고해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구는 사업 만족도와 수요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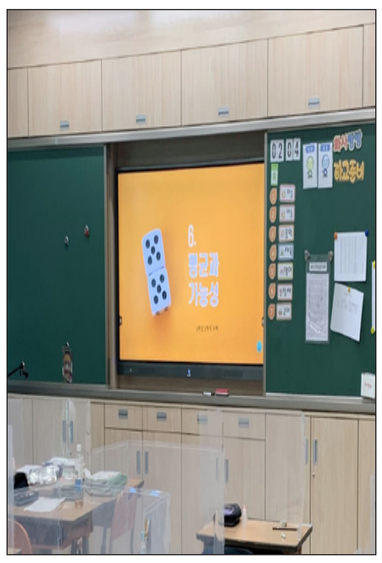
서대문구는 온라인 학습과 원격수업이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서울시 최초로 관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칠판과 스마트기기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메이커 스페이스와 온라인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융합인재교육 등에 힘썼다. 또한 특수학급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구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교육자치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급격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구의 역할을 한정 짓지 않고 학교 현장의 필요를 구 사업에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성북구, '청소년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나눔 가게 활성화' 성과 공유회 개최

2021 성북구 민관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소년 사회혁신 활동인 '청소년,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나눔 가게 활성화' 의 '성과 공유회'가 오는 3일에 개최된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디자인기반의 로고,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활동이다.

성북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50여개의 팀을 이루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문제 인식 및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아이디어 발상 ▲홍보마케팅 등의 단계를 거치며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 참여했다. 직접 현장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본다는 것이 사업의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학점연계 방식으로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학생들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팀별 활동과 디자인 보정작업을 거들며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학생들이 개성 있는 아이디어와 활동을 공유하는 가운데 함께 보람을 나누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과 공유회 영상은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미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원/기자

"나는 마포의 손흥민" 2022년 어린이 축구교실 신규 선수 모집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로 멈춰있던 어린이 축구교실도 정상화됐다.

마포구는 어린이의 체력 향상을 돕고 미래의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축구교실'의 신규 선수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어린이 축구 교실'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난지천 인조잔디축구장(상암동 소재)에서 매주 수요일(오후 4~6시)과 토·일요일(오후 2~4시)에 진행된다.

축구 교실에 선발된 선수들은 축구공, 유니폼 등 축구용품을 지원받고 전문 지도자로부터 축구에 필요한 스탭, 드리블, 패스, 응용기술 등 기본기를 익히고 기초 체력 훈련을 받는다. 또한 활동 기간 동안 서울시장기 및 시 협회장기 대회, 어린이 축구 왕중왕전 등 대회에도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마포구 어린이 축구단은 지난 2019년 서울시 왕중왕전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 저력있는 어린이 축구 강팀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 지역의 초등학교 3~5학년 재학생(2021년도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학년별 10명씩, 총 30명이며 별도의 실기 테스트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마포구청 또는 마포구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2년 어린이 축구교실 선수 선발전은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난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50m 달리기, 드리블, 패스, 슈팅, 게임 등의 실기 테스트로 진행되고,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축구는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의 신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단체활동을 통해 협동심, 사회성, 리더십 등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 축구교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각종 체육활동이 일시 중단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감에 따라 올해는 체육활동들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이번 어린이 축구교실을 시작으로 구는 청소년 풋살교실의 선수 모집도 진행할 예정이며, 여성 축구교실은 수시로 선수를 모집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어린이 축구교실은 축구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키우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며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송파구, '송파 온마을 정원사' 교육 및 수료식 개최

송파구가 지난 11월 30일 '송파 온마을 정원사' 교육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송파 온마을 정원사'란, 주민의 손으로 마을 정원을 가꿔 더 정답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송파구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5개 시범동(풍납1·오륜·가락본·가락2·위례)에서 지원한 '송파 온마을 정원사'들은 11월 25일에 온라인으로 마을 공동체 교육을, 수료식 당일인 30일엔 다육 식물을 활용한 조경 실습 등 구체적인 마을 정원사 교육을 받았다.

수료식은 정원처럼 꾸민 무대, 아카펠라 그룹 '보이스 토이(Voice toy)'의 식전 공연, 전국의 마을 정원 모범 사례 전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했다.

한 참가자는 "평소 마을 정원에 관심이 많았는데, '송파 온마을 정원사' 프로그램이 생겨서 참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열심히 해서 우리 마을을 더 멋진 곳으로 만들겠다"라며 의지를 표현했다.

106명의 '송파 온마을 정원사' 수료자들은 앞으로 다양한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역량을 키워갈 예정이다. 송파구는 2022년에 '송파 온마을 정원사' 사업을 27개 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 온마을 정원사'들이 살기 좋은 송파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주민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주민이 꿈꾸는 마을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가꿔,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다함께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영등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돕는다 · · · 비대면 교육 운영

영등포구는 코로나19와 산업 발전으로 인한 변화한 시장 유통 환경과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가 익숙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방법과 온라인 마케팅의 개념, 중요성을 인식시켜 사업 역량강화는 물론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1회차인 15일 강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 디지털본부의 김현성 본부장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진행되며, 디지털 전환 현황과 성공사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서 ▲블루문씨엔씨의 이지민 대표가 강사로 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유통채널의 현황과 채널별 특징, 활용법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2회차인 16일에는 ▲베네피티 차유빈 대표의 브랜딩 기법 및 성공·실패사례를 공유하는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경쟁력 있는 브랜딩' 강의가 진행되고, 10분간 휴식 후 ▲정해엽 커너스 대표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학습하는 '크라우드 펀딩 도전과 마케팅'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학습한 후 모든 교육이 마무리된다.

교육 수강을 원하는 관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및 구민은 오는 12월 13일까지 홍보포스터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영등포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교육 참여자 전원에게는 교육 종료 후 강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디지털 스터디북도 제공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마케팅 판로 확보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디지털 역량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모쪼록 이번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이 힘을 얻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경기도, 대표상징물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5개 발표

경기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기도 대표상징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새로운 대표상징물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한 '경기도 대표상징물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15개 작품을 3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기도 대표상징물을 활용한 우리의 일상과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디자인과 영상 등 2개 부문에서 총 153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예선심사와 2~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 디자인 부문은 총 36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디자인부문 8개, 영상부문 7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디자인부문 학생부 1등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경기도'는 대표상징물 안에 수원 화성, 융건릉 등의 경기도 문화유산을 담고, 대표상징물 주변에 일상을 살아가는 도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경기도를 다채로운 시각으로 표현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영상부문 1등을 수상한 '곳곳에 감춰진 도시의 보물을 찾아봐!'는 대표상징물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 가능성, 다양성을 경기도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발견해보는 독특한 주제로, 작품성과 재미를 모두 잡았다는 평이다.

수상작은 옥외현수막, G버스 영상, 유튜브 콘텐츠 등 경기도 대표상징물을 알리는 홍보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VR(가상현실) 전시 공간)에서도 오는 15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경기도 대표상징물을 활용해 주변의 일상과 경기도의 모습을 담은 멋진 작품을 만들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공모전에 선정된 수상작은 향후 경기도 대표상징물 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월 16년 만에 바뀐 대표 상징물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한글 초성인 'ㄱㄱㄷ'으로 디자인해 상단은 초록색으로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 나가는 경기도를, 하단은 파란색 직선과 곡선을 조화롭게 사용해 유연하면서 강직한 경기도를 각각 표현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경기도 도서관정책 평가 우수상 수상

도서배달서비스, 코로나블루 심리방역프로그램, 독서문화공동체 발굴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광명시 도서관서비스 성과 인정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도서관정책 평가에서 올해 우수시군으로 선정됐다.

도서관 서비스 환경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도서관정책 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활성화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 작은도서관 지원정책 등을 정량평가하고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를 정성평가하여 그룹별 9개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상황으로 실적지표를 최소화하고 역점사업의 배점을 확대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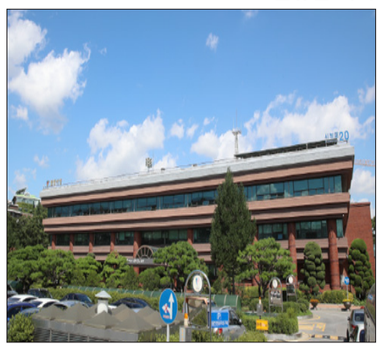
광명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도서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블루 심리방역 프로그램 운영, 시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이루어 독서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공동체를 발굴, 지원하는 등 시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기반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작은도서관팀을 광명도서관에 두고 연간 8억7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관장 및 봉사자의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회,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스스로가 만드는 도서관문화와 공동체지원에 힘써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서관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며, 지역곳곳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독서공동체를 지원하여 책을 통해 배움이 일상이 되고 시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과 50개 작은도서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연간 23억3천7백여만 원의 예산으로 4만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430여개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4,000여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수원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마스크 만들기 등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간협력 활동 '호평'

수원시가 자원봉사 등 민간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원시는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2021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은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정부가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이웃을 돕고 사회를 발전시킨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 16회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은 유공자를 중점 발굴, 수원시의 모범적인 민간협력 대응이 주목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지난해 초,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천마스크 5만2000여 개를 만들어 예방수칙 등을 담은 홍보물과 함께 배부하고, 마스크 분실방지 목걸이 3만5000개를 제작해 나눠주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방역활동지원단을 모집해 지역아동센터 등 131개소에서 자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내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에서 1만1000명을 위한 손소독제 제작과 배부 봉사활동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에도 791명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보조하고, 외국어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도 104명을 모집해 자가격리자를 위한 통역봉사 등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 이례적인 집중호우 당시 수해를 입은 34개 지자체에 9000여만 원의 긴급 지원물품과 현장 복구에 나서고, 사랑의 밥차 지원, 공유냉장고 활성화, 폐장난감 분해 배출 등의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웃 사랑을 넘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노력에 참여해 호평을 얻었다.

대통령 표창으로 이어진 수원시의 자원봉사 노력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모범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소중한 마음으로 방역과 대응에 노력을 보태주신 수원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라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민간협력의 모범사례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인천서부소방서, 겨울철 화재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인천서부소방서는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이후에도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점검해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종남/기자

화성시,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으로 인허가 업무에 효율성 높인다

한해 평균 2만 7천여 건으로 전국 최다 인허가 업무를 처리 중인 화성시가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인허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인허가 실무자 및 수행사인 ㈜하트미디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은 올해 4월부터 7개월간 총 4억 5천만 원이 투입돼 ▲인허가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관련 법령 실시간 제공 ▲감사사례·판례·업무노하우·민원사례 등 지능정보 DB 지원 ▲각종 부담금 자동 산출 기능 등을 갖췄다.

또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지침 등을 분석해 용도지역지구별 개발행위 가능 여부와 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물에 따른 협의사항과 협의부서, 관련 법령을 알려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그간 수기로 관리했던 개발행위 허가대장이 전산화됐으며, 향후 산지와 농지, 공장용지 등 개발행위 외 타 인허가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은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과 담당자 사전교육을 거친 후 오는 2022년 1월부터 업무에 본격 도입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발행위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됨으로써 불필요한 협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양질의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하남시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콜번, AI데이터산업 혁신클러스터 개발에 '카네기멜런대학교' 참여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부문 인재육성과 연구개발에 있어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인 카네기멜런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USA)가 하남시 미군공여지에 조성될 데이터산업 클러스터에 핵심교육연구기관의 역할로 참여한다.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과 김상호 하남시장은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콜번을 4차산업혁명시대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연구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카네기멜런 대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카네기멜런대학교는 향후 조성될 클러스터에 AI 부문 최고급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원 학위과정 개설과 글로벌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참여키로 했다.

카네기멜런대학교는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발표한 2018년 대학순위에서는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분야 모두에서 1위에 랭크 되었으며, 영국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1 세계대학순위에서 컴퓨터 공학 분야에 MIT,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컴퓨터 공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성과로 유명하다.

최종윤 의원은 "미래산업의 승패는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데이터사이언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한 대한민국 AI & S/W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남시의 해당 계획에 초기부터 참여하면서 협력업무를 담당해 온 존 강 카네기멜런대학교 아시아 협력과장(John Kang)은 "카네기멜런대학교의 인공지능 교육경쟁력은 하남시가 추진하고 관련 계획에 잘 어우러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AI 전문 기업과의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산학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남시의 계획에 따르면 미군공여지 내 교육연구혁신클러스터에 카네기멜런대학교는 최고급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대학원 학위과정(복수학위 석사)을 개설한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계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년은 하남시에 조성될 교육연구혁신클러스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1년은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해 미국의 워싱턴대학교, 텍사스 대학교(오스틴),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 등에서 수업을 받는 글로벌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참여할 이 대학들은 세계대학평가기관 THE의 2021년 글로벌 대학 순위에서 각각 29위, 47위, 58위를 차지한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기관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오랜 시간 표류했던 미군반환공여지에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 중심의 혁신교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있어 하남시는 고급·전문 인재 양성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특히, 2024년으로 계획 중인 개교를 위해 카네기멜런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 복수학위과정과 글로벌 학사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할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학들을 특정하기 위해 '하남시 교육연구혁신클러스터 조성 범시민소통위원회(안)'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편, 최종윤 의원과 김상호 하남시장은 캠프콜번을 4차산업형 교육연구혁신클러스터로 개발함에 있어 시민과의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숙원사업인 미군반환공여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하남시가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호/기자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콜번 부지 전경

경기도 GYEONGGI-DO

양평군, 희망의 성탄 트리 불을 밝히다

양평군은 지난 1일 양평군청 청사 앞에서 양평군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2021년 성탄절 기념 트리 점등식' 행사를 개최했다.

양평팝스오케스트라의 식전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성탄 트리 점등식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가오는 2022년의 밝은 시작을 기대하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성탄 트리 점등 기념 축하 예배를 시작으로 양평군 정동균 군수,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 양평군 기독교 연합회 홍성장 회장(양평순복음교회 목사), 노순호 부회장(반석교회 목사), 인유진 총무(열방공동체교회 목사) 등이 점등 인사로 참석해 성탄 트리에 불을 밝혔다.

특히 새이레 기독학교 학생들의 밝고 활기찬 특별 무대는 희망찬 새해를 바라는 이번 성탄 트리 점등식 행사에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성탄 트리는 예년과 다르게 양평군청 청사 앞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양평장로교회 앞 회전 교차로에도 설치돼 군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트리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불을 밝힌다.

정 군수는 "성탄 트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양평군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성탄 트리의 밝은 빛이 우리 주변의 어둡고 소외된 곳에 온정의 빛이 되고 힘든 이웃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기업애로 적극 수렴하겠다" 최대호 안양시장, 2일 기업현장 방문

영상감시 시스템 전문 기업 ㈜아이엔아이 찾아 기업인과 소통시간

최대호 안양시장이 2일 영상감시 시스템 전문 기업 ㈜아이엔아이(동안구 시민대로 365번길)를 현장 방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안양시가 3일 밝혔다.

(주)아이엔아이는 cctv를 주력으로 각종 영상감시 시스템을 개발을 주력으로 한다. 조달청 조달우수, 중소벤처기업부 인정 경영혁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등 여러 기관에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은 유망기업이다.

최 시장은"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기 위해 기업sos시스템 구축, 기업현장 방문 등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경제 발전의 근본이 되는 일자리 정책 및 근로 복지에 집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아울러 기업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영상정보 시스템 최첨단화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 개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이엔아이 이상우 대표는"지난 6월 8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벌말로118번길 주변 보도 설치 및 도로 확장 건을 안양시의 신속한 처리해 근로자의 보행과 차량 이용이 모두 안전해졌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지역 기업인으로서 기업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소통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안양시의 기업 지원정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정부/기자

학교교과연계 도시·치유농업 사업 평가회 개최

평택시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과연계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난 2일 사업평가회를 개최했다.16개 학교 담당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평가회는 2021년도 사업 추진 보고와 함께 2022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1년간 3개 분야에 걸쳐 학교교과와 연계하여 추진한 학교생태학습텃밭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은 관내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텃밭을 조성하고 9,021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기별 계절별 작물 식재와 함께 텃밭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으며, 특히 올해 사업을 추진한 평택청아초등학교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공모전에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교 특수학급 치유텃밭 조성 시범사업은 관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1,096명에게 조성한 텃밭을 통해 아이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치유농업 교육을 진행했으며,특수학급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교육은 관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842명에게 농업과 원예활동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관계자는 "본 평가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담당교사들과 사업에 대한 평가와 추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부천시, 지역경제활성화 · 선순환 구조 다져

부천시는 위드코로나에 발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토대로 '지역경제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시는 외부재원 확보 증대, 예산 신속집행, 관내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확대, 대형공사 관내기업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도 11월 23일 기준, 신속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27,946억원, 집행액 20,851억원으로 74.6%의 집행률을 보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 11위를 달리고 있다.

4/4분기 소비·투자실적은 목표액 1,473억원, 집행액 679억원으로 46.1%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 5위를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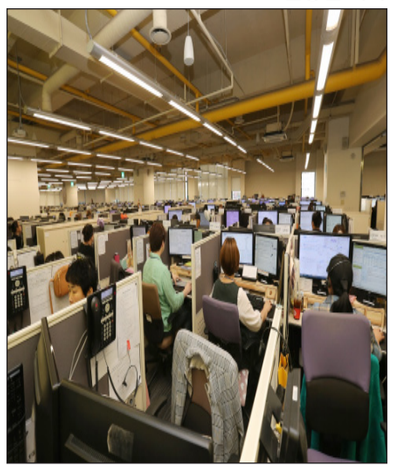
2021년 10월 31일 기준, 관내기업 생산품과 서비스 우선구매실적 중 관내업체 수의계약 실적은 1,664건 477억원으로 74.8%의 비중을 차지하며 당초목표 7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 상설 면담창구 운영에 따른 구매실적은 23건에 4천만원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소액구매요청이 다수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에는 관내기업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실적을 관리하고 우수부서 시상을 추진하지만, 내년도에는 100만원인 시상금을 270만원으로 확대하고 외부재원 확보, 신속집행, 대형공사 관내기업 참여 실적을 포함하여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재원 확보 등 확장재정 정책을 통하여 시중의 자금량을 높이고, 그 자금이 우리시에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는 '부천시 일상회복 지역경제활성화 선순환 UP'과 같은 경기 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전략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용민/기자



오산시, 수도권 최고 관광핫플레이스로 떠오른다

오산시가 '교육도시'를 넘어 '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2008년 서울대병원 오산병원 유치를 위해 구입한 뒤 방치돼왔던 내삼미동 부지 12만여㎡가 그 핵심 '핫플레이스'다. 오산시는 이 부지를 500억원에 사들였지만 2013년 서울대병원의 병원 건립 추진 중단 통보로 방치돼 왔다.

중부권에서 가장 알토란같은 이 부지의 활용을 고민하던 오산시는 2016년 '경기도 재난안전복합체험관' 유치를 성사했고, 이어 2018년 '아스달 연대기세트장', 2020년에는 '더킹 : 영원의 군주 세트장'까지 설치했다. 올 11월 13일에는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 온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가 문을 열었다.

오산시 안의 작은 세계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오산 미니어처빌리지는 부지면적 11,783㎡, 건축면적 3,521.86㎡(지상1층, 지하1층) 규모의 실내형 미니어처 전시관으로 실제크기의 1/87로 연출된 미니어처 세상을 통해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누구나 함께 보고 즐기고 상상할 수 있는 체험 기반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기존의 미니어처 시설들과는 차별화된 각각의 스토리와 이와 연결되는 미니어처의 움직임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건물 1,400여개, 자동차 1,450여대를 제작하여 각 공간마다 상징이 되는 랜드마크와 에피소드가 연출된다. 상설전시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미니어처로 표현한 시간여행(한국관)과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표현한 세계여행(세계관)을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미니어처 전시 관람 이후에는 오산시 캐릭터와 미니어처 세계관을 결합한 3D 애니메이션을 '가디언즈'를 체험할 수 있다. 가디언즈는 열기구를 타고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위기에 처한 미니어처 세상을 구한다는 스토리의 3D 어드벤쳐 어트렉션으로 열기구의 형태에 맞춰 스크린을 360˚로 조성하여 실감을 더한다.

전시 콘텐츠 외에도 관람객이 미니어처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체험·교육·이벤트를 운영한다. 미니어처 전문 제작 공방 '미니 팩토리', 창작 기반의 미니어처 교육 공간 '미니 스튜디오', 미니어처를 상상하여 드로잉으로 표현해보는 '미니 피플 프로젝트'는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의 대표 이벤트이다.

'더킹' '아스달연대기' 세트장 보려면 오산시로!

- "아스달 연대기" 세트장

2018년에 조성된 아스달 연대기의 세트장은 상고 시대를 배경으로한 국내 유일의 창작 세트장이다. 거대한 성문을 통과하면, 아스달 사람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제화단'을 지나 아스달 연대기 세트장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연맹궁'까지 당도할 수 있는데, 아파트 7층 높이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한다. 또한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색감을 자랑하는 '불의 성채'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관람객들의 필수 촬영 장소이다.

- "더 킹: 영원의 군주" 세트장

2020년에 조성된 이곳은 대한제국의 황궁 정원을 모티브로 한 세트장으로 노란 은행나무가 인상적이다. 화면 속 정원을 가득 채웠던 연못과는 달리 현재는 연못물을 비워 시민들의 쉬어 갈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문객 시설 어서오산 휴(休)센터는 2021년 3월 정식 개관하여 내삼미동 방문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과 관광 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상 2층 규모로 1층(174.67㎡)은 아스달 연대기 촬영에 사용되었던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환상의 숲' 미디어 영상실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다.

2022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개관

국·도비 200억원, 총사업비 307억원이 투입된 국민안전체험관은 내삼미동 16,500㎡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7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체험관에는 교통안전, 소방관 직업 체험, 가정 내 안전사고 교육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 안전 동화마을', 자연 재난이나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복합 안전체험관', 응급 처치 교육과 4D 영상을 활용한 가상 안전 체험 등 11개 체험존을 구성해 안전교육과 재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중부권 최고의 알토란 같은 요지에 자리잡은 내삼미동 부지가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면서 "현재 건립중인 경기도국립안전체험관까지 잘 마무리하여 내삼미동을 최고 인기를 누릴 관광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인천 동구보건소, 동구민 행복한 걷기ON 챌린지 운영

인천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홀해지기 쉬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동구민 행복한 걷기ON(12월6일~12월13일)' 챌린지를 실시한다.

챌린지 도전자들은 챌린지 기간(8일)동안 목표걸음 4만9천보(1일 7천보 초과 적립불가)를 달성해야 하며, 목표걸음에 성공한 도전자 중 선착순으로 72명을 선발해 챌린지 성공 기념품을 전달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참여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민에게는 비타민C를 증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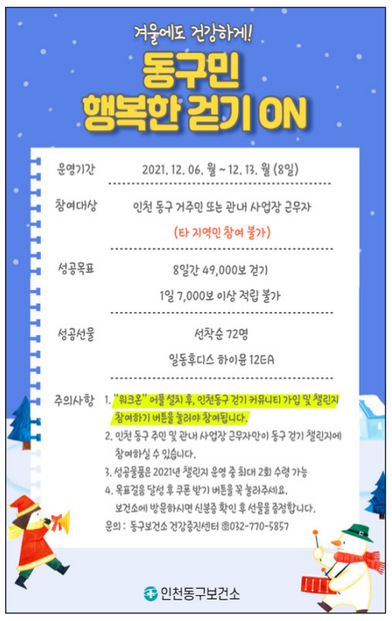
구는 이번 챌린지 도전자들이 걸음 수 경쟁을 통해 걷기 운동에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모바일 앱인 워크온을 통해 걸음 수와 자신의 순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와 함께 지속적인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걷기를 실천하고 걷기 운동이 생활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걷기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다운로드해 '인천 동구 걷기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워크온 챌린지 메뉴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쉽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걷기챌린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구건강증진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남/기자



성남시, 제3회 장애를 넘어 소통하는 꽃춤축제 온라인으로 열려

'제3회 장애를 넘어 소통하는 꽃춤축제'가 국제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ING 즉흥그룹(대표 최문애)주최, 아이엔지콜라보그룹이 주관하고 성남시, 경기도, 한국무용협회, 한국장애인무용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성남꽃춤축제,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성남시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영된다.

꽃축축제에서 상영되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음악, 공연전시, 댄스필름 등 모든 공연프로그램은 해설과 수어통역으로 공연 감상의 이해를 높인다.

꽃춤축제 개막초청공연 ing즉흥그룹 제작 댄스필름 '플라워 판타지'는 장애인 전문초청공연 케이휠 댄스프로젝트의 현대무용(김용우) 등 여러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댄스필름 '플라워판타지'는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장애를 춤과 음악의 판타지 세계에서 치유하고 소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라워판타지는 대학교수, 전문예술인,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장애인 참가자들이 함께한 작업으로 전문·비전문, 장애·비장애, 장르를 넘어 제작한 작품이다.

장애인 일반참가자들이 펼치는 '꽃춤챌린지' 수상작품 총 13팀 공연과 '꽃춤 공개수업과 결과물'도 공연된다.

이외에도 미국 하이디랏스키 '온디스플레이' 공연 전시와 금난새 지휘자의 성남시립교향악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K.136' 외 여러 공연이 펼쳐진다.

이성율/기자

안산시, 안산스마트허브 IoT 기반 스마트 가로등 설치

국비 21억3천여만 원 투입…에너지·탄소배출 70%가량 감축 효과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의 야간 도로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IoT 기반 스마트가로등 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 가로등 1천594개를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첨단 IoT 기능을 활용해 도로상황과 통행량을 분석할 수 있는 조명제어 장치 1천809개를 설치한 것으로, 국비 21억3천700만원이 투입돼 올 3~11월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야간에 도로가 1.5배 밝아지는 효과와 함께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도로조명 상황 파악이 가능해 졌으며, 기존 조명대비 약 74%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연간 탄소배출량을 36만kgCO2에서 9만3천kgCO2로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는 1천500cc 자동차를 연간 150대 줄이는 효과다.

시는 IoT 도로조명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치·시간대별 교통흐름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행정·스마트허브 환경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산스마트허브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경북도,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상생협력 성과 '눈길'

엔제리너스 커피 500개 매장 컵과일 두달만에 매출 12억원 달성

경북도는 올해 8월 10일 롯데GRS(롯데리아 · 엔제리너스 등)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역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상생협력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먼저, 롯데GRS에서 운영하는 엔제리너스 커피 전국 500개 매장에서 최고의 과일 주산지인 경북을 대표하는 제철 과일을 활용한 사과 · 샤인머스켓 등 컵과일 주스 4종을 지난 10월 1일부터 출시한 이후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와 연계한 경북 고향장터'사이소'신규 회원 가입자에게 엔제리너스 컵과일 할인쿠폰을 지원해 전국에서 8119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해 전국민이 사랑하는 농산물 판매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기존 사과 · 샤인머스켓 등 생과일 납품에서 컵과일 형태로 납품하여 부가가치가 2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리아에서는 지역 양파 재배 농가에서 생산한 햄버거용 양파를 지난달 말부터 14t을 시작으로 내년 3월말까지 총 300t(1억8000만원)을 구매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가중된 지역 의료원(포항 · 안동 · 김천 등) 의료인들에게 7회에 걸쳐 무료 커피 2000여 잔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경북도와 롯데GRS는 대구 수성못 인근에 개점 예정인 엔제리너스 커피 대형 매장에 지역 농특산물 전시코너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명절기간에는 전국 엔제리너스 매장에 농특산물 선물세트를 전시하고 '사이소'를 통해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소'가 전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장터로 거듭나도록 롯데잇츠 앱(회원 249만명)을 통한 대대적 홍보·마케팅도 펼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롯데GRS와의 업무협약 이후 다양한 협업사업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협약을 맺은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봉금/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주시 월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 마지막 회의 가져

경주시 월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월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1년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때 한 위원이 제안한 '동절기 취약계층 물품 지원'과 관련해 협의체 사업으로 채택할 지 여부와 물품 종류 및 지원 시기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21.11.5.~22.2.28.)을 운영해, 협의체 위원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꼼꼼복지단'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월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정모 민간위원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에 임해 준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단합해 올해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이웃의 어려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민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장서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주봉 월성동장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한마음 한 뜻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상길/기자

대구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 '리마인드 컬러풀'

예술인, 의료진, 지역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한 '시그널 챌린지'

11월 22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운영되는 '리마인드 컬러풀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세계인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그널 챌린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은 컬러풀페스티벌 개최취소의 아쉬움을 익년도 축제에 대한 기약으로 전환하고자 '리마인드 컬러풀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프로젝트 영상을 공개하고, 국채보상기념공원 달구벌 광장 내 높이 12M의 대형 LED 조형물인 '컬러풀 메모리 타워'를 통해 순차적으로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1차 33편의 영상공개에 이어 지난 11월 30일(화)에는 2차 영상 36편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 퍼레이드 쇼케이스팀, △ 해외 퍼레이드팀, △ 컬러풀송 , △ 컬러픽 스테이지, △ 시그널 챌린지(시민위로영상) 등으로 퍼레이드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영상 중 다국적 걸그룹 '블랙스완'이 참여한 컬러풀송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하루만에 조회 수 1천 회를 기록하고, 다양한 댓글이 등록되는 등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컬러풀송 뮤직비디오는 달구벌대종, 강정보 디아크 등 컬러풀 프렌즈의 탄생지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촬영되어 대구와 대구컬러풀페스티벌을 알리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어 대구축제학교 해커톤 우승 프로그램인 '컬러픽 스테이지'는 컬러풀 프렌즈를 중심으로 총 5편의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은 2년째 휴업을 하게 된 프렌즈들이 고향을 방문하여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참여 예술가들을 초대해 직접 무대를 연다는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21세의 젊은 대학생부터 68세의 공직 은퇴자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구성된 11명의 대구축제학교 시민기획단의 결과물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위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그널 챌린지'는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이사, 대구컬러풀페스티벌 남성희 조직위원장, 방송인 슬리피를 시작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다. 대구의료원 및 지역 내 4개 대학병원 의료진, 대구 중부경찰서, 대구 중부·서부소방서, 서문시장, 칠성시장 상인회 등 축제 참여자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동참하고 있다.

힘든 시기를 견디는 모두에게 전하는 응원메시지와 함께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구호와 '계속'을 뜻하는 수어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퍼레이드팀들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챌린지를 통해 래퍼 베이식의 고향이 대구라는 점이 알려지며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대구를 응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기존 축제가 개최된 구간인 국채보상로(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에는 청년 디자이너 김글씨(김대연)의 '꽃피는 오월' 작품이 게시 중이다. 이번 작품은 축제의 꽃인 퍼레이드를 '꽃'이라는 글자로 형상화하였으며 꽃피는 내년 5월에는 국채보상로 거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이사는 "축제를 기억하고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 추진된 리마인드 컬러풀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리마인드 컬러풀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뿐 아니라 전 세계에 힘이 되고,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컬러풀 메모리 타워' 3차 영상은 12월 2주차에 공개되며, '리마인드 컬러풀 페스티벌'의 모든 콘텐츠는 대구컬러풀페스티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박종채/기자

제8회 영양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시상식 개최

영양군은 '제8회 영양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종 132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영양군의 자연 경관, 역사, 관광지, 축제 및 행사, 문화, 생활상 등을 담은 사진을 주제로 지역 관광 홍보자료 활용을 위하여 열린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부터 응모 및 접수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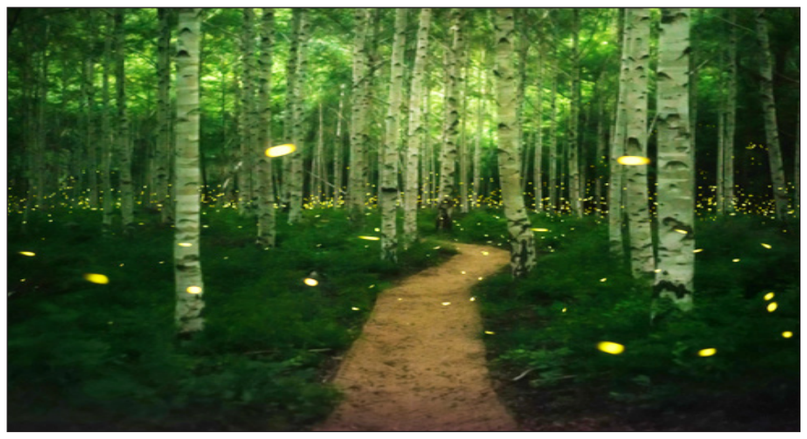
전국에서 165명이 692점의 관광사진 작품을 출품했으며 접수된 작품 중 홍보물 활용 가능성, 심미성, 독창성의 심사기준에 의한 엄정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윤은준씨의 "비밀의 숲" 이 금상(상금 500만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을 받은 윤은준씨는 영양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자작나무숲과 주변에 서식하는 청정지표가 되고 있는 반딧불이의 궤적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8회 영양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은 일반부문(총 11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100점, 스마트폰 부문(총 2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10점 등 총 132점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은 앞으로 지역 행사, 영양군청 및 관내 기관 시설 등에 전시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영양군을 찾고 관심으로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공모전 참가자들이 직접 영양군을 방문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영양군에 대한 많은 매력을 느끼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관광 홍보 및 군정 활동에 활용하여 영양군의 아름다운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영천시, 사랑의 땔감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영천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노약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2가구(36㎥), 11월 17가구(51㎥)에 전달하여 올 한해 동안 총 29가구(87㎥)에 사랑의 땔감을 전달했다.

사랑의 땔감은 연중 숲 가꾸기 사업지 등 산림사업지 내 발생한 부산물 중 원목을 수집해 마련한 것으로 방치된 산림 부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산림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경관 저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시 산림과에서는 "금년에는 한 해의 시작과 끝에 사랑의 땔감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부산물을 수집하여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장동호/기자

㈜포스코케미칼, 국내 유일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1단계 준공

국내 유일 양·음극재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포항시가 이차전지 주요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이차전지분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2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1단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대표이사, 포스코 정창화 신성장부문장,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7만8,535㎡(2만3,800평) 부지에 2023년까지 총 2,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1만6,000톤 규모로 조성되며, 1단계 준공에 이어 2단계는 2023년 11월말까지 각각 연산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포항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조흑연 음극재는 60kWh 기준 전기차 약 42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특히 인조흑연 음극재는 천연흑연 음극재보다 충전·방전 효율이 높고, 고온에서 가공하는 제조공정 특성상 배터리가 부푸는 '스웰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어 안정성이 높고 입자가 고르게 배치되면서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급속 충전이 용이해 전기자동차 배터리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금까지 구축된 이차전지 분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를 구축해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을 육성하고 포항을 이차전지분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7월 6,000억원 규모의 ㈜포스코케미칼 양극재공장 유치로 국내 유일의 양·음극재 소재를 생산하는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적인 배터리 메카도시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을 하게 됐으며, 한편 영일만4산단 내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올해 9월 착공식을 개최한 GS건설 투자에 이르기까지 이차전지 제조혁신 허브도시로의 주도권을 확보해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경쟁우위의 입지를 굳혔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는 "국내 생산이 전무했던 인조흑연 음극재의 원료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국내배터리 산업이 또 한 번 도약하는 순간을 맞이했다"며, "향후 포스코그룹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한 차세대 소재 개발, 공정기술과 양산 능력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김노이/기자

구미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발족, 문화도시 지정 향한 정주행

구미시가 전 행정력을 결집하며 문화도시 지정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월 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배용수 부시장, 국, 과장 및 담당계장 등 총 80여명이 참석,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문화도시 행정협의체'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족식은 행정협의체 운영계획 설명, 전문가 특강, 협력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강은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장을 초청하여'문화도시 행정거버넌스의 역할 및 필요성'을 주제로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행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체는 단장 시장, 부단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가능한 25개 부서 41개 담당으로 구성, 문화도시조성 연계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부서와 의견수렴 및 협의, 시민 제안사업 검토 등 실질적 협업기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배용수 부시장은"이제 도시정책에서 문화는 피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다양한 부서의 정책과 연계는 꼭 필요, 향후 행정을 넘어 시민과도 호흡하는 문화도시 구미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관계부서의 상호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 구미시는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추진단을 비롯하여 단체·유관기관 협의체, 산학연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민관협치의 구도형성으로 구미시 고유의 문화도시 사업을 발굴하여 2022년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문화도시 지정사업'은 2022년까지 총 30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진된다.

윤봉금/기자

부산시, 국비 8조 원 시대 열다!!…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부산시는 2022년 최종 국비 확보액 규모가 8조 1,592억 원이라고 오늘(3일) 밝혔다.

이는 2021년 확보액인 7조 7,220억 원보다 무려 4,372억 원(5.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개막한 지 불과 2년 만에 국비 8조 원 시대를 연 것이다.

지난 8월 부산시가 자체 집계분석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 7조 9,302억 원 보다 2,29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30부산세계엑스포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등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2.5억 원)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30억 원)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2억 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21.3억 원) ▲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2억 원) ▲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구축(25.1억 원) 등 부산시 주요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투자 분야는 신청액(4조 7,846억 원) 대비 확보액(4조 1,124억 원) 비율이 86%를 기록해 사상 최고의 투자 국비 반영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한 지역의 여야 정치권 노력과 함께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주요 현안의 국비 확보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차례에 걸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온 결과이다.

특히, 시는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원내지도부, 예결위원장, 예결위 양당 간사, 예결위원,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이다.

시는 '코로나 위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부산 도약'이라는 가치 아래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지역 상생발전,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실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고,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면서 부산의 새로운 도시 비전인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구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지역 상생 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국가 균형발전 유도, 2030부산세계엑스포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등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 2.5억 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170억 원 등을 확보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으로 남부권 지역 상생발전 도모,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30억 원,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21.9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8억 원, 동남권 그린 수소 항만 조성 8.4억 원,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15억 원 등을 확보했다.

도심, 동서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240억 원,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128억 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68억 원 등을 확보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실현,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미래 혁신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99억 원, 다목적 해상실증플랫폼 구축 127억 원,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30억 원 등을 확보했다.

부산형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10억 원, 해외소형선박 수주패키지 지원 5억 원 등을 확보했다.

미래형 항만,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발돋움,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84.6억 원, 해양레저안전체험관 건립 2억 원, 2020 FIATA 부산총회 지원 9.9억 원 등을 확보했다.

어민 보호 및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21.3억 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39억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 5억 원 등을 확보했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300억 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2억 원 등이 반영된 만큼 지역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삶의 질 향상, 긴급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등 두터운 복지체계 구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21.8억 원,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9.3억 원 등을 확보했다.

재난재해 선제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40억 원,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35억 원, 삼락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1.4억 원 등을 확보했다.

탄소중립과 미래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 선제 대응, 분뇨처리시설현대화사업 59억 원, 국립 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32.8억 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 16억 원 등을 확보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기반 구축 등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 실현,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100억 원, 아시아콘텐츠 및 필름마켓 육성사업 7억 원,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지원사업 6억 원 등을 확보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0.1억 원)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250억 원) 등이 반영되어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부산형 뉴딜사업으로는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29.7억 원) ▲DaaS 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사업(22.8억 원)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사업(169.3억 원) 등이 확보됐다.

올해 시는 국비 8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연초부터 정부 예산 편성 방향과 4대 투자 중점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지방재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기간 전부터 국비확보 추진단(단장 경제부시장)을 가동하여 정부안에 미반영 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예산심의 기간에는 지역 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국회 예결위 의결 직전인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2일까지 경제부시장과 경제특보가 국회에 상주하면서 주요 국회의원, 기재부 간부들을 직접 찾아 예산 반영을 설득하는 등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그리고 국회 예결위원인 조경태, 전재수, 정동만 의원뿐만 아니라 박재호, 백종헌 여·야 시당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원팀이 되어 부산시 최대 국비 확보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박형준 시장은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은 부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부산, 나아가 남부권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2030부산세계박람회, 동남권 메가시티 등 핵심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아갈 것"이라면서,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 부산시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특히 부산시 여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수소도시 창원'서 CO2 없는 청정 수소경제 대전환이 시작된다

CO2 배출이 없는 청정 블루액화수소 생산 및 관련 기술 국산화 위해

창원시-두산중-하이창원 간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CO2 포집·활용 추진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을 착공한 창원시는 정부의 청정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두산중공업, 하이창원과 손을 잡고 CO2 배출이 없는 청정 블루 액화수소 생산과 이에 관련된 기술의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3일 오전 11시20분 시청 접견실에서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백정한 하이창원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산업특별시를 지향하고 있는 창원시는 2020년 3월 산업부의 '산업단지환경개선(스마트산단) 펀드사업 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위해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창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각종 제도 개선 및 상위계획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 7월 28일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착공식이 열렸으며, 현재 각종 설비 제작 및 플랜트 구축 현장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창원를 비롯해 국내에서 추진되는 액화수소 생산은 기존 도시가스를 개질하여 생산된 기체수소를 영하 250℃ 의 극저온에서 액화(液化)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단위부피당 에너지밀도가 기체수소의 800배로 수소의 운반 및 공급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소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수소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액화수소의 생산과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개질을 통해 기체수소를 생산할 때 상당량의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되므로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적절하지 않는 수소 생산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액화수소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액화수소플랜트 설치기업인 두산중공업, 운영기관인 하이창원과 지속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수소 생산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전량을 포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설비 구축사업을 통한 블루 액화수소 생산의 추진을 합의했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블루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CCU 설비 구축사업은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매일 5톤의 액화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48톤을 포집·활용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1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산업부 '지역에너지신산업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CCU 설비 제작에는 창원지역 주요 기업체가 다수 참여하여 Column, 압력용기, 열교환기, 펌프, 블로워, 배관 및 벨브류 등 핵심 설비 대부분을 국산화하게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수소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인 수소도시를 위해 필수적인 액화수소의 필요성을 일찍이 주목하여 행정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제시된 청정수소 공급체계 전환에 부응하고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선도하기 위해 블루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CCU 설비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블루 액화수소 생산이 이뤄지면 2020년 기준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탄소저감량의 4%수준인 연간 1.7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며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 국내 수소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궁영기/기자

산청 남사예담촌 '푸른경남상' 수상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산청군 남사예담촌이 '제21회 푸른경남상'을 수상했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푸른경남상은 녹지공간 조성, 관리, 자율참여 등 3개 부문으로 시상이 이뤄졌다.

남사예담촌 남사마을(이장 박태진)은 관리부문에 선정됐으며 시상금으로 2023년도 상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박태진 이장은 "우리 주민들은 마을운영회를 통해 공터 코스모스 식재, 메밀 파종, 능소화 터널 정비, 마삭줄 식재지 제초관리 등 마을 가꾸기에 힘쓰고 있다"며 "남사예담촌을 아름답게 가꾸는 주인공은 모두 마을주민들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청 남사예담촌은 지난 2011년 사단법인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연합(이하 한아연)이 제1호 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옛스런 담쟁이덩쿨과 토담에 둘러쌓인 수백년 전통의 고가, 고가와 함께 세월을 보낸 매화나무, 좁은 골목사이로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부부회화나무 등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덕분에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지리산'의 주요 장면들도 이곳에서 촬영됐다.

남사예담촌은 3.2㎞에 이르는 고풍스러운 옛 담장을 만날 수 있는 전통마을이다. 이 담장은 국가등록문화재(제281호)로 지정돼 있다.

'예담'은 옛 담장이라는 의미다. 예를 다해 손님을 맞는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담장의 높이는 2m에 이른다. 민가의 담장이라기엔 다소 높은데 골목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올라탄 사람 눈높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곳에 쟁쟁한 반가가 많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마을 안에는 18~20세기에 지은 전통 한옥 40여채가 남아있다. 국악계 큰 스승으로 손꼽히는 기산 박헌봉 선생을 기념하는 기산국악당과 백의종군하는 이순신 장군이 묵어갔다는 산청 이사재(경남문화재자료 328호)가 있다.

산청 남사리 이씨고가(경남문화재자료 118호)에서는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 구조와 음양의 조화를 꾀한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 있으며, 유교 전통이 깃든 산청 남사리 최씨고가(경남문화재자료 117호)와 사양정사(경남문화재자료 453호)도 눈에 띈다.

하씨고가에는 산청 삼매 중 하나인 원정매가 있다. 수령 670년이 넘는 고매 였으나 지금은 2007년 고사한 나무의 뿌리에서 자란 자식 나무가 매년 봄, 꽃을 피우고 있다. 원정매 외에도 여러 고택 앞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자리해 봄철 매화 탐방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장병철/기자

진주시, 일반성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완료

조규일 진주시장은 3일 오전 11시 리모델링을 완료한 일반성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일반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사업 현황 보고, 테이프 커팅, 시설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일반성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비 2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보건지소로 사용되었던 유휴 건축물을 연면적 197.25㎡ 규모로 1층은 북카페 및 회의실,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재구조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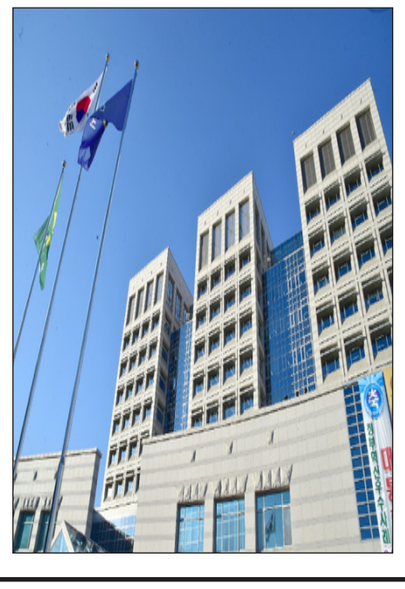
일반성면 주민자치센터는 2019년 개소하여 별도 공간 없이 면사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동락관' 일부 공간에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으나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추가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독립된 복합·문화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생활 활력 제고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기획·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사용자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북카페 등의 공간을 반영했다.

조규일 시장은 "새로 마련된 주민자치센터는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함께 일궈낸 공간"이라며 "주민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동부 5개면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일반성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마지막으로 생활SOC 주민자치복합화 사업 5개소(집현면, 명석면, 문산읍, 상봉동, 일반성면)를 모두 완료하여 지역 주민에게 실용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공감·소통 공간을 조성했다.

최광용/기자



경상남도 GYEONGNAM

진주시, '제21회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수상

진주시는 '제21회 경상남도 푸른경남상' 조성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올해 21회를 맞이한 '경상남도 푸른경남상'은 생활권 주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에 공적이 있는 단체, 개인 등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서류 및 현지 실사, 민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성, 관리 등 2개 부문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진주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푸른 도시 숲 조성을 위해 비봉공원 외 11개소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13개소에 투자한 총사업비 등 2374억원의 예산을 도심의 주요 경관 녹지 확보 및 가로수 식재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투입했다.

그 결과, 도시 숲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녹지관리 운영 부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푸른경남상 조성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진주시는 앞으로 2023년 녹지공간 조성사업에서 도비를 우선 지원받게 된다.

진주시는 사유지 매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주요 도심 주요 경관 녹지 확보에 공헌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숲 조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관내 공원 및 녹지관리 직영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 행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힐링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푸른 숲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볼거리가 함께 있는 명품 숲, 명품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원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의령군, '2021 성탄트리 점등식' 개최

의령군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의령군이 후원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 2일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열림마당에서 불을 밝혔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성탄트리 점등식에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의령군기독교연합회 관계자, 군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점등된 대형 트리는 따듯한 연말 분위기를 위해 내년 1월 초까지 사랑과 희망의 불빛을 선사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매년 트리의 불을 밝히지만 지금 밝히는 이 불빛이 코로나로 위축된 군민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사상 최대 8조시대 활짝

대형 SOC사업 추진 박차…미래 위한 신규사업 대거 반영

전라남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에 8조 3천914억 원이 반영돼 사상 첫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조 6천671억 원보다 9.4%(7천243억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SOC 예산이 전년보다 2천121억 원 늘었다. 전남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주요 신규사업도 2천 224억 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에 39개 사업 1조 6천3억 원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 1억 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 턴키 발주하게 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도 2천400억 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천50억 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천600억 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 원 등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개 사업에 6천219억 원이 반영됐다. 농업 관련 사업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 사업은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 건설사업 설계비 46억 원이 포함됐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RnD 분야에선 59개 사업 1천801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15억 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8억 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 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 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사업 14억 원 등을 확보했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에선 32개 사업에 1천152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 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 원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 원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 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24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250억 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에 1천253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로 15억 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3억 원 ▲ 호텔,리조트사업 108억 원 등이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한반도 분화구 정원조성 12억 원 ▲순천만 교량교재가설 40억 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 조성사업 16억 원이 포함됐다.

고용·행정 분야에선 55개 사업 2천491억 원이 반영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43억 원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한국섬진흥원 리모델링 및 운영비 57억 원도 확보했다. 남해안 남중권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 원도 신규확보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반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곧바로 2023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다 행복한 전남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전라남도

완도 해양치유밥상 1호점 지정

완도군은 신지면에 소재한 '해양치유 일번지 모래뜰'에서 '해양치유밥상 1호점' 지정식을 가졌다.

해양치유밥상 1호점 지정식은 미담외식창업연구소에서 주최·주관하였으며, 해양치유밥상을 함께 개발·연구한 해양치유 일번지 모래뜰, 완도군 농업인단체장 및 품목별 연구회장 등이 참여했다.

'해양치유밥상'은 톳·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 해조류 떡갈비, 전복 내장 소스, 톳·미역귀·색깔보리를 넣은 색깔보리톳밥, 제철 생선찜, 김국(갯국), 해조류 샐러드, 해조류 전(떡), 완도 과일 음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식재료는 완도에서 제철에 나는 것을 활용했다.

해양치유밥상을 접한 관광객들은 "완도의 청정한 맛을 느낄 수 있어 건강해진 느낌이며, 특히 다양한 해조류와 김에 싸 먹는 전복 해조류떡갈비 맛이 일품이다"라고 호평했다.

군은 해양치유밥상 1호점 지정식을 시작으로 해양치유밥상이 완도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밥상 매뉴얼을 내년 준공 예정인 해양치유센터와 희망 외식 업체에 보급해 해양치유밥상 음식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영율/기자

무안군, 2021년 올해의 우수시책 국민참여 투표 실시

무안군은 2021년 올해의 우수시책 선정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우수시책 선정은 지난 해 첫 시행한 정책으로 이번에는 최근 3년 이내 시행한 시책 중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시책을 선정한다.

군은 지난달 말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 26개의 우수시책을 접수받아 그 중 1차 내부위원 심사를 통과한 14건을 대상으로 2차 외부위원 평가를 거쳐 7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했으며,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최우수 시책 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7건의 설문대상인 우수시책은 ▲무안군 도시브랜드 구축 및 BI 디자인 개발 ▲노을길 야영장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악신도시 유휴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무안읍 복합문화센터 건립 ▲낙지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양념채소류 일관기계화 생산비절감 시범사업 ▲모두누리 남악 열린숲 조성사업 이다.

김산 군수는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군민참여를 통해 군정업무를 홍보하고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무안군민 뿐만 아니라 무안군정에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무안군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조기석/기자

신안 퍼플섬,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

'퍼플섬(purple island)'으로 유명한 신안군 반월·박지도가,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었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2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총회를 열고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반월·박지도를 선정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 선정 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홍보, 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의 각 마을을 평가해 인증해주는 사업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하는 '세계관광우수마을'은 모두 3등급으로 나뉜다. 우선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인증하는 '최우수관광마을(World Label)'이 있고, 다음이 '최우수관광마을 개선 프로그램(Upgrade Program)', 그 다음이 '최우수관광마을 네트워크 (World Network)'이다. 퍼플섬 반월·박지도는 이 가운데 제일 높은 등급인 '최우수관광마을(World Label)'에 선정된 것이다.

국제 공모전 형태로 진행된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사업에는, 세계 75개국 170개 마을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을 펼쳤다. 특히 '1회'라는 상징성이 매우 큰 탓에 각 대륙별, 국가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 초대돼 '유엔세계관광우수마을'을 직접 수상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마다 지닌 생태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살려 섬마다 독특한 컬러가 있는 섬을 만들어가고 있는, 4만 신안군민과 신안군의 노력을 유엔과 전 세계가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경사"라며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반월·박지도 주민을 비롯한 신안군민께 바친다"고 밝혔다.

이번 퍼플섬의 '유엔 세계관광최우수마을' 선정은,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의 큰 기폭제 역할은 물론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관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퍼플섬을 비롯한 신안의 섬들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신흥 관광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925년의 국제관광연맹(IUOTO)을 개편하여 1975년에 설립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로, 관광의 진흥과 개발, 관광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총 155개 회원국과 6개 준회원국, 400여 개 지부(민간단체·교육기관·관광협회·지역관광기관 등)가 가입되어 있다.

조기석/기자

화순군,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86.2점

전년 대비 1.2점 상승…편의시설 만족도 가장 커

화순군은 2021년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 만족도가 전년 대비 1.2점 증가한 86.2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조사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민원인 2000명 중 700여 명을 무작위 추출해 진행됐으며, ▲직원응대 ▲업무처리 ▲편의시설 등 분야별 만족도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편의시설 만족도가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원응대서비스(85.8), 업무처리서비스(84.3) 그 뒤를 따랐다. 만족도가 저조한 홈페이지 접근성과 담당자 전문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 서비스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여수에 동부권 사랑의 온도탑 우뚝…'희망나눔 캠페인' 출범

3일 여수시청 앞 1호광장에 사랑의 온도탑 설치

'희망2022 나눔캠페인'을 알리는 전남 동부권 사랑의 온도탑이 전남 여수에 설치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3일 오후 여수시청 앞 1호광장 로타리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전남 동부권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슬로건 아래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2022나눔캠페인으로 사랑의 온기를 모아 갈 예정이다.

제막식에는 허영호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최연철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과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및 사회복지 기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3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사랑의 온도탑에 온기를 더했다.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김철희 ㈜대신기공 대표, 최정호 순천북부교회 장로, 김유미 맘스터치 전남지사 대표에게 1억 원 완납 기념 핸드프린팅 동판이 전달됐다.

한편 여수시청 앞 1호광장 로타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희망2022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동부권 및 여수 지역의 나눔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웃사랑 성금모금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사랑의 온도탑 나눔목표액은 여수 지역을 포함해 총 89억 3200백만 원으로 목표액의 1%인 8천932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절실한 때이니만큼 전 시민, 기관, 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 모든 곳에 나눔과 행복의 씨앗이 널리 퍼져 올해도 사랑의 온도가 100도 씨를 넘을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해남군, '아따! 묵어야 살지라' 해남의 맛을 탁상 위에서 만난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2022년'게미진 음식달력' 발간

해남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남특산물을 활용한 계절음식을 이용해 내년도 탁상용 달력을 발간했다.

관광 달력은 멋들어진 지역사투리를 사용해 월별·계절별 어울리는 해남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포도시'1월에는 해남바다를 몽씬 담아븐 해우국을,'긍께'2월에는 겁나게 보드랍고 묵직한 해남농주를,'따수운'3월에는 해풍과 쑥떡쑥떡 게미지게 버무린 쑥떡을,'아따'4월은 두륜산 산나물을 곁들인 허벌나게 신선한 채소를 즐기는 보리쌈밥을, '여간 좋은'5월은 집나간 입맛도 돌려준다는 보리숭어를,'기언치'6월은 해남 한우를,'워메'7월은 통째로 묵어브러 통닭을,'징해'8월은 개안하게 청정바다를 땀뿍 품은 해남 뻘전복을,'오진그'9월에는 겁나게 맛있구마 고구마빵을,'옹삭한' 10월은 혀끝에서 녹는 보드라운 삼치회를,'귄있는'11월은 영양 땀뿍 낙지한우탕탕이를, '욕봤소'12월은 해남배추로 담근 짐치(김치)를 담아냈다.

달력의 별지도 구성진 사투리를 이용해 웃음을 자아낸다. 쪼깐 쉬다 올랑께 찾지마쇼(휴가 중입니다), 아따 묵어야 살지라(식사 중입니다), 먼데 갔응께 지달리지 마쇼(회의 중입니다), 나 언능 오께라(외출 중입니다) 등 재미있는 문구로 장식했다.

게미진 음식달력은 2,000부 제작되었으며 전국 여행관련업체를 비롯하여 해남군 향우회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페이스북'해남만남'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배포한 결과 모두 소진 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음식달력을 제작한 군 관계자는"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월별·계절별 해남의 맛을 찰진 전라도 사투리를 활용하여 음식으로 표현하였다"며,"달력을 보고 해남의 맛에 흥미가 생겨 해남관광에 한걸음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양영율/기자

부안군, 라이브커머스 농특산품 홍보 '효과 톡톡'

부안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한 부안군 농특산품 홍보 라이브커머스 방송 '생쑈 부안특산물전'이 누적조회수 86만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라이브커머스 전문 운영사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협업 및 11번가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쌀, 버섯, 대봉감, 떡 등 관내 총 13개 업체가 참여해 B2B와 연계한 오프라인 거래액을 포함해 총 2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이번 라이브방송은 각 제품의 특징을 방송에 자연스럽게 잘 녹여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업체와 협의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누적조회수 86만명, 약 3만개의 '좋아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제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댓글이 라이브 채팅창을 가득 채우며 큰 인기를 얻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 연초에 계획을 확정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을 조기에 선정하고 시기에 맞는 계절상품을 선정하는 등 분기별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다양한 농산물 마케팅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진안군청 광장 따뜻함이 가득

진안군청 광장에 장식조명을 설치해 연말연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광장 느티나무 주변 조경수 및 군청사 전면에 트리전구, 눈꽃, 볼 등 각양각색의 LED로 장식된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군은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이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따뜻함, 건강,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2022년 2월까지 광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 방문하는 군민들이 따뜻한 트리 불빛처럼 기쁜 일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전라북도, 호남권역'찾아가는 혁신현장 투어'전북에서 개최

전북, 광주, 전주, 전남 신안 등 "탄소중립" 실천 혁신사례 공유의 장 마련

자발적 시민참여 운동으로 시작한 제로플라스틱 객리단길 사업이 대표적인 혁신사업으로 꼽혔다.

전북도는 3일 행정안전부의 '호남권역 찾아가는 혁신현장 투어'를 전주소통협력공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현장투어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참여로 해결하는 우수사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례를 상호학습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와 전남, 광주광역시, 전주시의 혁신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번 혁신현장투어는 ▲재활용 투명페플라스틱 원사로 만든 한복 전시, ▲호남권역 혁신사례 공유회, ▲해설이 있는 공간투어 등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버려지는 투명 페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원사로 제작한 한복이 소개되었다.

한복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가진 회사로부터 소재를 제공받아 전주의 청년 한복 디자이너가 제작했다.

한복을 직접 착용해보고 전시된 한복을 둘러보면서 투명 페페트병이 자원순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한 경험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깨끗이 버리고 잘 수거하면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다음 순서로는 호남권역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청취하는'혁신사례 공유회'가 진행되었다.

전북은 카페와 상가에서 많이 사용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제로플라스틱전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역 주민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등 민관이 함께 추진한 캠페인 사례를 소개했다.

전주시는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불편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약 1만 명의 주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워크숍과 시민회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 버스 노선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지역 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시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위축된 예술가들과 지역 거점 공간에 문화공간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비대면 전시 프로젝트인 별밤 미술관 조성을 추진했다. 작가들이 모여 위원회를 만들고 주민에게 친숙한 미술작품을 선정하는 한편 주민들도 작가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의 예술 문화를 만들어 온 사례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과 함께 개발 이익을 공유해왔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공간 인근의 선미촌 일대를 방문하여 과거와 현재의 지역 변화 과정을 보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지역 혁신은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 변화의 시발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의 우수사례인 '제로플라스틱 객리단길 사업' 은 자발적 시민참여형 실천운동으로서 지속가능한 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오늘 호남권역 혁신현장투에서 보여주는 협치의 좋은 사례들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20년 숙원" 익산 신청사 첫 삽, 랜드마크 탄생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 24년 11월 완공 예정

익산시가 시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목표로 고품격 신청사 조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3일 오후 4시경 현 청사 뒤편 주차장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사 추진을 기원했다.

기공식은 시립예술단의 안전기원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기공식 무대 중앙 LED 전광판에 모바일앱을 통해 접속한 일반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행사로 진행한다.

특히 펜싱국가대표 권영준, 프로골퍼 박현경, 트로트가수 최향과 가수 홍시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익산을 빛내는 익산시 홍보대사들이 영상 메시지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한 어린이, 대학생, 다문화 가족, 소상공인, 마을 주민 등 50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희망을 담은 시청사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전달했다.

익산시 청사 신축은 1970년 현재 부지에 청사가 들어선 지 50여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익산 신청사는 백제 역사와 문화, 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열린 청사로 건립된다.

신청사는 총 사업비 948억원으로 연면적 4만23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가 연결해 건립된다. 주요시설로 업무공간, 다목적홀, 어울림마당, 시민홀, 시민교육장 및 회의실,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3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 11월 완공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공사 착수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날이다"라며 "시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인 청사'를 목표로 고품격 시청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남원시, 남원지역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추진

남원지역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추진된다.

남원상수도사업소는 오는 2024년까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인 '동화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협력·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동화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남원배수지 인근까지 연결되는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공사계획 총연장은 20.4㎞(관경은 ϕ600㎜)이며, 예상사업비는 총430억(국비 30%, 수공 70%)정도다.

이 사업이 추진된 데에는 그동안 1개의 송수관로(ϕ800㎜)로만 남원시, 순창군, 곡성군, 장수군, 임실군 등 5개 시·군에 상수도 공급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복선화 관로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관로 노후화 개량, 관로 파손 등으로 송수관 안전사고 발생 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2022년 하반기까지 환경부 기술심의 등을 통해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동화댐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는 모든 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기관간에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원활하게 협력함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은 물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물복지향상, 주민들의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완주군, 감염병 관리 국무총리 표창

완주군이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2021년 감염병관리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해마다 감염병 관련 업무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국 3곳(광역지자체 1, 기초지자체 2)을 지정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제외한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율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만12세 HPV예방접종률 ▲국가발전기여도 ▲주민만족도 등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그동안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올해(1~11월)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100%,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고 누락 및 신고 지연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외에도 대상포진, 만 14~64세 독감 예방접종 등 완주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도 지속해 왔다.

완주군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은 "완주군이 코로나19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외 감염병 관리 업무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감염병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양양군, 연말 가족과 함께 즐길 문화예술 볼거리 풍성

양양문화원과 (사)한국예총 양양지회가 연말을 맞아 주민의 일상에 문화예술 향기를 입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다.

양양문화원에서는 군민들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해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배우고 익힌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또 (사)한국예총 양양지회는 오는 18일(오후 5시) 문화복지회관에서 제14회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브라스퀸텟쇼(금관5중주), 600합창단, 수앙상블, 원기타듀오 등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 상호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저녁 6시부터는 '2021 예술인 페스티벌' 행사가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畵)사(寫)한 시(詩)전' 이라는 주제로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콜라보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 국악협회의 사물놀이 공연, 문인협회의 시낭송, 사진작가협회의 테마 사진 영상 상영회, 미술협회의 즉석 그림 시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술협회 자선소품전이 22일부터 27일까지 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28일 저녁 6시에는 문인협회 양양문학지 발간 및 문화축제가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열린다. 양양향토예술 문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상호간 예술문화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과 전시회를 통해 풍요롭고 따뜻한 연말의 뜻깊은 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철원군, 침체된 골목상점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상임대 청년상가 조성사업 시행

철원군은 육단 2리 양지마을에서 무상임대 청년상가 조성사업이 지난 11월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계획되었고, 민간투자사업인'무상임대 청년상가 조성사업'과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의'청년일자리 창업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무상임대 청년상가 조성사업은 침체된 골목상점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기업인 ㈜희성에서 2020년 빈 점포를 매입 후 양지마을에 청년창업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10년간 무상임대를 제공하고, 군은 청년창업자를 모집하여 빈 점포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창업시설개선비 1,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소망 드리밍 대표는"도시재생 일환으로 대학생 때부터 꿈꿔 온 창업을 이루게 되어 매우 기쁘다. 쇠퇴한 마을의 문화생활을 위해 미술을 매개로 아이주도, 흥미중심, 놀이중심, 과정중심의 교육기관을 운영토록 하겠다."

이현종 철원군수는"이번 사업은 민·관의 노력으로 쇠퇴한 지역에 청년창업자를 발굴, 빈 점포를 개선하여 새로운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감소 등으로 침체된 마을공동체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여 골목경제와 마을공동체의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삼척시, 제11회 삼척사계절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시상

삼척시는 오는 4일 삼척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제11회 삼척사계절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사진작협회 삼척지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삼척 관광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관광명소 외 숨겨진 비경이나 문화자원 등 삼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작품으로 지난 31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594점이 출품됐다.

지난달 3일 공모전 주제와의 적합성, 독창성, 참신성 등을 고려해 5명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상에는 손재모 씨(강원)의 '모래성' ▲은상에는 김종길 씨(강원)의 '항구', 김성재 씨(서울)의 '덕봉산 가는 길 2' ▲그 외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70점등이 수상작 81점이 입상됐다. 금상 3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등으로 총 상금 1천50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삼척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수상작 81점을 전시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의 매력을 가득 담은 수상작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삼척 관광에 활기를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춘천시, 국내 최대 실감 콘텐츠 체험존 내년 1월 문 연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실감 콘텐츠 체험존이 마침내 문을 연다.

춘천시정부는 국비 등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애니메이션박물관 토이로봇관 1층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진행한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춘천의 대표 문화공간인 애니메이션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이로봇관 1층에 들어서는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은 413㎡ 규모에 장난감과 로봇을 주제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를 체험할 수 있으며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방문객들에게 개방한다.

한편 시정부는 실감콘텐츠 체험존 외에도 이른바 메타버스 놀이터라고 불리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이등원/기자

강릉시, 올림픽 유산 활용 사업 적극 전개

강릉시는 동계 빙상종목 인재육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올림픽 유산인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문화, 전시,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올림픽 유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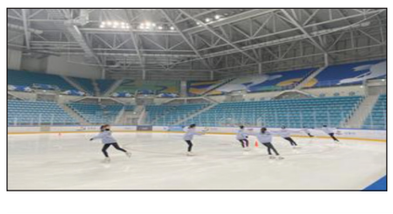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파라 아이스하키 강습, 전국의 유·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피겨스케이팅 체험 강습 및 단계별 강습과 스타급 올림피언 강사로 구성된 동계스포츠 아카데미사업을 지원하여 동계올림픽 인재 육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반다비 스포츠 캠프사업을 지원하여 전국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체험과 올림픽 가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홍보와 사전 붐업을 통해 대회 성공개최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강릉시는 올림픽 유산인 강릉아레나에 22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에 50m 8레인의 수영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1층 복도에 e-zen 가설건축물에 임시로 설치된 올림픽 뮤지엄을 이전하여,

올림픽의 유치과정 및 다양한 기록을 위한 전시관과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자원봉사기념관 조성과 더불어 동계 빙상종목 체험을 위한 XR체험관을 추가 조성하여 이달 12월 중순에 개관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주문진 청소년 위로·희망 콘서트 개최

강릉시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위한'2021 주문진 청소년 위로·희망 콘서트'를 3일(금) 10시 30분 주문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한다.

'2021 주문진 청소년 위로·희망 콘서트'는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앞날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으로 준비되어 있다.

콘서트 공연에는 강릉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댄스팀과 강릉 출신으로'쇼미더머니','고등래퍼 시즌3'에 출연했던 실력파 래퍼 '최진성(goi)'이 전반부 공연에 참여하며, 마지막으로 인디 가요계의 감성 플레이리스트이자 각종 드라마 OST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감성 보컬 밴드'디에이드'가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활동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 여부 확인, 좌석별 거리두기, 함성 금지 등 지도자와 참가 청소년들이 방역 수칙을 엄중히 지키며 진행된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에게'강릉시 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활동 영상과 홍보물을 통해 시설을 홍보하며, 청소년들이 콘서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야광 물품 배포를 통한'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캠페인'도 진행이 된다.

2021 주문진 청소년 위로·희망 콘서트는'MBC강원영동 열린 채널'에서 방송으로도 만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코로나 기간 속 오랜만에 청소년들과 대면 활동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시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마지막 10대의 추억으로 깊게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양양종합여객터미널 공정률 92%…내년 1월 준공

지하1층, 지상2층 규모…교통망 중심지, 도심확장의 기폭제 기대

양양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92% 공정률을 보이며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40여년 만에 이전, 새로 지어지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연결도로 사업비 등 총 11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1,800㎡의 규모다.

군은 내년 1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외부 마감공사와 유리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정비고 마감공사 등 마무리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 부지 내 도로 포장공사, 7번국도 가·감속차로 포장공사 등 토목공사와 전광판, 무인발권기·무인물품보관함·휴대폰 충전함 설치, LED간판·노출시계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차로 신호등 4개와 신호과속단속기 2개 신규설치와 기존 신호과속단속기(송암리→강현면사무소 앞 교차로) 2개를 이전설치 할 계획이다.

터미널 완공을 기점으로 주변에 대형마트가 신축되고, 동해북부선 양양역사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양양관광 교통망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물론, 양양도심의 기능 확장과 도심 전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을 내년 1월 3일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이전에 터미널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강원도 '무엇이든 딜리버리~·'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방영

강원도에서 오마이걸 승희·비니의 살짝 설렘 배송이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KBS N과 협업하여 위드코로나와 국제 관광 재개에 대비한 선제적인 강원도의 해외홍보를 위해 웹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딜리버리'를 제작하여 방영 중에 있다.

'무엇이든 딜리버리'는 강원도의 딸 오마이걸 승희와 비니가 최근위드 코로나 시대 힐링 관광지로 급부상하는 강원도를 찾아 의뢰인이 원하는건 무엇이든 직접 배달해 주는 살짝 설렘 배송 컨셉의 프로그램이다.

오마이걸 [춘천's] 승희와 비니의 초긍정 마인드와 유쾌한 끼를 엿볼 수 있는 '무엇이든 딜리버리'는 강원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즈벡 유학생 쌍둥이 자매의 '달고나 게임편'을 지난 10월 27일 방영을 시작으로, 강원도 신상우 주무관의 '우리형 따끔한 꾸짖음편', 개그맨 정세협씨의 '개구리튀김편', 강원도민 신정훈씨의 '짝사랑 고백편', 승희와 비니의 '119 구조대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전

우즈벡 쌍둥이 유학생의(퍼티마, 주크라)오징어 게임 및 달고나 딜리버리편

달편'과 우영석 강원도 대변인이 직접 카메오로 출연한 승희와 비니에게 '강원도 명예 소방관 위촉장 전달편'이 KBS N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업로드 되고 있으며, 각각 7만 ~ 10만여의 높은 조회수를 보이며 많은 관심속에 국내·외에서 방영 중에 있다.

또한, 2020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박상우, 문시우 컬링선수와 승희와 비니가 함께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유망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KBS N 스포츠 TV 채널을 통해 해외에 홍보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작년 SBS 예능채널과 협업하여 강원도 출신 연예인 김희철의 '찐팬' 3인이 김희철의 고향을 탐방하는 '덕스투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청률 43만의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영석 강원도 대변인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강원도를 해외에 알리고자 이번 홍보를 기획했다"며 "요즘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CULTURE에 이어 강원도의 국제행사, 문화·관광, 유학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웹예능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정선군, 2022년 코로나19 위기 극복 4,904개 공공일자리 지원

정선군은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창출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슬기로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2년도에 복지·경제·환경·산림·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4,904여 개의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도 복지분야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100억 여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4개 사업에 2,884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30명, 자활근로 15개 사업에 140명 등 3,05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분야 연령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는 총 51억 여원을 투입해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304명,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및 정규직 일자리 지원에 283명 등 총 587명을 지원한다.

여성 및 청소년 분야에 여성 취업창업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를 위해 200명,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700명 등 총 9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분야에 강원환경감시대 9명, 산간계곡자연휴식년지 감시원 9명, 운영 및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100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5명등에 총 123명을 지원한다.

산림분야로는 46억원을 투입해 산불전문진화대 77명, 취약지 산불감시원 90명, 공공산림가꾸기 45명, 숲가꾸기 패트롤 5명, 이동단속초소 운영외 7개사업에 23명 등 총 240명을 지원한다.

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위축되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청소년을 비롯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 지원을 통해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문화도시 청주와 나눔 깐부되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문화도시 청주·사랑의 열매, 올해도 나눔문화 캠페인 시작

올 겨울, 문화도시 청주와 '나눔 깐부' 맺으면 어떨까?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함께 '2022 청주 일상기록장 나눔문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번째 진행하는 나눔문화 캠페인은 대한민국 첫 법정문화도시인 문화도시 청주의 비전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일정액을 기부하면 문화도시센터가 제작한 '청주 일상기록장'을 배부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에는 700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해 350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액이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전달됐다.

올해의 캠페인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단 5일로, 문화도시 청주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명, 입금자명 확인 후 13일부터 순차 배송한다. 선착순으로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액이상 기부 시 1인 1권의 '청주 일상기록장'이 배부된다.

이번에 제작한 '청주 일상기록장'은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띠 해를 맞아 [2022 Hellog 호랑이 기운아 솟아라] 콘셉트로 기획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의 안부(Hello)을 전하고 일상을 기록(log)하자는 의미를 담아 만든 단어 'Hellog'에 호랑이를 메인 캐릭터로 디자인했다. 휴대성을 최우선으로 한 콤팩트한 사이즈와 트렌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번 기록장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문화도시 시민위원, 문화도시 멤버십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일상기록장'답게 다양한 일상기록을 위한 9종의 내지(Monthly 1종, Weekly 1종, 유·무선·격자노트 각 1종, Culture Log 2종, Habit Tracker 습관 달력 1종, 컬러링북 1종)와 기록의 즐거움을 더할 볼펜, 스티커 3종까지 함께 구성돼 있으며 총 1,000권을 제작한다.

500권은 나눔문화 캠페인을 통해 우선 배부되며, 나머지 500권은 캠페인을 마친 후 문화도시 멤버십 카페 6곳에서 일정금액 이상 음료 구매 시 배부된다.

나눔문화 캠페인에 함께하는 사랑의 열매 노영수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도시 청주와 문화 상생을 실천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문화도시 청주의 나눔문화 캠페인이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 일상기록장'은 청주문화재단이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제작·배포해 온 '문화 다이어리'의 후속으로,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삼은 문화도시 청주시민의 문화생활을 기록·수집하자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으며 2020년부터는 이웃사랑 실천의 의미까지 더한 나눔문화 캠페인으로 가치를 넓혀가고 있다.

'청주 일상기록장'과 '나눔문화 캠페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도시 청주 홈페이지 또는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정화/기자

'충남도, 한국어' 통해 신북방 공공외교 이어간다

내년도 사할린 교류사업으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본격 추진

충남도는 3일 사할린국립대에서 열린 '2021 러시아 사할린주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사할린주정부 교육부와 사할린국립대가 주최하고, 도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사할린국립대 한국어학과장, 참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사할린 현지 초·중·고·대·일반 등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 20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이 중 50여 명이 이날 본선에 올라 한국어 능력을 뽐냈다.

이번 행사는 도의 주요 지방외교 추진 사업인 '사할린한인 연계 공공외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도내 사할린한인 초청행사 △사할린한인 역사특강 및 순회사진전 △사할린주정부 화상회의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가 등 실질적 사업을 거치며 사할린주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우리 도에서는 이필영 행정부지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김영명 도 경제실장이 내년도 사할린주 교류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이 폐회사를 담당했다.

이날 도는 내년도 사할린주 교류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알리기 △한국문화 페스티벌 △제4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신북방 공공외교를 펼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는 오경식 선문대 한국어교육원장이 온라인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등 도내 대학과 사할린주 간 교류 협력의 물꼬도 텄다.

이 부지사는 이날 영상을 통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이번 말하기 대회 참여를 초석으로 삼아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주시, '청년농 나눔 직거래장터' 개최

충주시가 이번 주말을 이용해 '착한 농부 좋은 이웃 나눔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주시 역점 농정 시책인 '청년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충주시가 주최하고 중원JCI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농들이 함께하는 나눔 행사이다.

직거래 행사는 충주시청 옆 임시주차장에서 오는 4일과 5일 주말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나눔 행사로 △충주시 청년농부 직거래장터 △청년플리마켓 △체험부스 △푸드트럭 먹거리존 △농산물게임 △충주씨 포토존 △SNS 이벤트 경품행사 △헌혈행사 △천원경매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지역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사과, 딸기, 밤, 고구마 케일 등 약 20여 종류의 농산물과 청년농업인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직거래 장터가 충주시의 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민의 따뜻한 소비가 청년농업인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임도시설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충북도는 산림청 주최「2021년 임도시설 우수사례 평가」에서 진천군 마을 순환형「복합기능 초평 영구임도」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지난해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임도 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림청 우수사례 평가는 '20~'21년도 시설한 임도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서 13곳을 응모했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개소 선정하고, 이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2차 현장심사 평가를 통해 6개소가 선정됐다.

충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로 선정됐다.

진천군 마을 순환형「복합기능 초평 영구임도」우수사례는 국 · 공사 유림 협력 임도망 구축으로 노선선정, 토공처리(운반사토)적절, 기계화 작업장 조성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는 산림청장상을 수여받게 되며, 임도 우수사례 사례집에 수록돼 전국 지자체에 보급된다.

김태은 산지관리팀장은 "임도신설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높이고 시설임도의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재해에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전국 최고의 임도를 시설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청년에게 응답한 천안시, '청년센터' 조성 가시화

공간기획단 운영으로 청년과 함께 청년을 위한 센터 조성 예정

지난 11월 부시장 직속 청년담당관을 신설한 천안시가 청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징검다리인 '청년센터' 조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천안시는 청년센터 조성을 위해 '공간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으로 청년 참여소통의 서막을 알렸으며 9월에는 청년주간행사를 개최해 다양한 청년활동가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청년 접근성을 높이는 거점 공간이 없다는 것.

이에 시는 불당동 일원에 150여 평 규모 신규 청년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지원사업 중심이 될 청년센터는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 활동공간으로, 청년 지역사회·시정 참여 활성화와 정책 수요 증가에 다른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을 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설계에 돌입했으며 내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청년센터 조성 전반적인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공간기획단'이라는 소통채널을 마련했다. 공간기획단은 건축전문가, 운영기관을 비롯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며 센터 조성 과정 전반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른 지역 청년센터 벤치마킹에 동참함은 물론 새로운 공간 구성을 위한 청년들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수집해 공간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시공과정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센터 명칭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비롯해 개소식 행사의 기획 또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대건 천안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은 "공간기획단을 구성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조건 참여한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은 물론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듣고 차별화된 청년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청년담당관은 "천안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일 뿐 아니라, 11개 대학이 위치해 어느 도시보다 많은 청년이 활동하고 있다"며 "청년 응답에 충분히 호응해 청년들이 직접 공간 기획에 참여한 실제 필요한 공간으로 청년센터를 구성하겠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청년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2021 Innovation 기업·브랜드 대상' 수상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이 2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 Innovation 기업 &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다.

스포츠서울에서 주관한 이번 상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애민의 정신으로 모범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었다.

최청환 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평소 민생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고충과 숙원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고,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쓰며 생활밀착형 민생 정치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선도했다.

또한,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 다수 조례를 제·개정하였다.

최 의원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은 것만으로도 매우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시상식 없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상장이 전달되었다.

양시현/기자

여수시, 2021년 자랑스러운 기업인 3명 선정

권오봉 여수시장이 2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직원 정례회에서 2021년 여수시 자랑스러운 기업인으로 선정된 문상봉 ㈜대광솔루션 대표에게 시상하고 있다.

'2021년 여수시 자랑스런 기업인'에 김종권 ㈜그린포트 대표, 정경훈 정엔지니어링㈜ 대표, 문상봉 (주)대광솔루션 대표가 선정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2일 오전 여수문화홀에서 시상식을 갖고 권오봉 여수시장이 경영 및 기술혁신,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3명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여수시는 매년 경영 및 기술혁신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선정해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린포트'는 여수산단 육·해상 사업장 폐기물관리의 기술혁신을 통한 운반·처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폐기물 발생량 저감은 물론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해오고 있다. 장비의 현대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는 등 여수산단 재해율 저감에도 크게 기여했다.

'정엔지니어링㈜'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컨트롤 밸브와 안전밸브, 압력계, 유량계 등 국가 기간산업의 제조·납품·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특히 여수시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기업의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내 고용과 매출 증대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광솔루션'은 공장자동화설비, 환경산업설비, 전기·기계설비 및 물류지원시스템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장학사업에 의한 인재육성 및 국제봉사단체 회원으로서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수상자들은 "여수의 기업인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발전·육성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동일/기자

관광 진도 홍보 UCC 공모전 · · · 배유미 씨 최우수상

진도군이 관광 UCC 공모전을 통해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시 '보배섬 진도'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관광 홍보 UCC 공모전 출품작의 최종 선정 결과 '진짜 진도'를 출품한 배유미(서울)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군은 공모전에 접수된 총 16편의 작품 중 9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진도군의 숨은 비경과 관광명소, 먹거리 등을 소재로 창의적이고 흥미 있는 영상콘텐츠를 발굴해 관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는 총 5명으로 구성된 내·외부 전문가가 아이디어, 표현방식의 참신성, 전달 메시지의 명확성, 작품 완성도·기술력,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모두 9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상금 300만원, 우수상 2팀(각 100만원), 장려상 6팀(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이번 공모전 선정 작품은 향후 진도군 홍보영상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 결과는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관광지 발굴, 특색 있는 관광프로그램 육성,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체험관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양호/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2년 연속 수상 쾌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에서 김현정 의원 (압구정동 · 청담동 지역구)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발의, '강남구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책연구용역 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조례안' 등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특히 올 해 발의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의원은 기부채납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중장기계획 마련 촉구 등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잘못된 구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정

활동으로 지역에서는 일 잘하는 구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김현정 의원은 "작년에 이어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더욱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강남구가 나아가야 할 구정 방향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도의원, 사회적경제기업단체 '감사패' 수상

도정질문, 간담회 개최,

사회적경제3법 제정 촉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로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1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날 행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과 지원기관의 노력을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강 위원장은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을 보완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매진해 왔다는 평가다.

강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의 자립 토대 마련을 위한 운영비 지원, 5급 상당의 민간 전문인력 채용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사회적경제3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전남도의회의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건의문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3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올해 5월 25일과 10월 28일에는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여성CEO 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여성CEO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성 사회적경제기업의 해법을 찾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 갖고,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노력해 왔는데 뜻깊은 행사에서 감사패를 받게 돼 기쁘다."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가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도의원, 사회적경제기업단체 '감사패' 수상

안성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 박요한 조합원,공무원 노동문학상 '장려상' 수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 박요한 조합원(안성1동)이 '제3회 전국공무원 노동문학상'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30일 안성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사)한국작가회 후원으로 전국 200여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139명, 240편이 접수됐다.

박요한 조합원의 수필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업무로 만난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마음을 공감한 이야기로 업무 중 경험한 실제 사례를 수필로 작성해 참신함이 돋보였다. 특히 쉽고 평이한 전개로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박요한 조합원은 "안성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

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과의 만남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공직자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여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안성시 공직자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종명 행정과장과 이광경 안성시지부장은 이번 수상을 축하하며, "향후 집행부와 안성시지부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하남도시공사, '희망누리하우스' 4천7백만원 기부

지난 2일 하남도시공사는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희망누리하우스' 사업을 위한 기부금 약 4700만원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희망누리하우스' 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기회가 제한되었던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에게 교육에 필요한 책상 및 PC등 물품을 지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남도시공사 이학수 사장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명은주 관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따뜻한 부모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 국가의 밝은 미래가 될 아동·청소년을 응원한다" 라고 말했다.

이번 기부금은 원도심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아동 중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블루 예방 프로그램, 가스차단기 타이머콕 등 다양한 후원 및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박강호/기자

부천시, 2021년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 '우수상' 쾌거!

주거복지 전담기관 '주거복지센터 개소', 영상지구 예술인 주택 공급 등 인정 받아

부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행정 평가에서 2021년 주택행정 '우수상'을 수상, 주택행정 선도 우수 시군으로 자리매김했다.

주택행정평가는 도내 지자체 주택 분야 사업의 추진 성과를 분석·공유하고 주택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평가반을 구성하여 10월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주택행정 우수 시책추진 △주거복지 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했다.

부천시는 △'부천 영상지구 예술인 주택 조성'으로 850가구의 문화예술인 주택 공급 △맞춤형 주거복지 전담기관 '주거복지센터' 개소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운영 및 비대면 교육 책자 배부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유도 △기존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회복을 위한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등 부천시만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우수시책 추진으로 주택행정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택행정 내실화에 기여한 부천시 유공 공무원도 도지사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인기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다양한 주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의정부미술도서관, '보다, 만들다, 칠하다' 전시회 개최

의정부시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오는 12월 1일부터 『보다, 만들다, 칠하다.』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현대미술의 감상과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험형 전시이다.

이번 전시회는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빠키 작가와 지희킴 작가가 참여했으며, 두 작가의 회화, 드로잉, 설치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한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빠키 작가는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인간들, 그리고 사물이 정해진 궤도 안에서 움직이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존재의 순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며 주변의 사물들을 기하학적인 요소로 해석해 빠키만의 유쾌한 시각적 언어를 통해 표현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러한 기하학적 요소들을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매체 위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희킴 작가는 버려지거나 기부받은 책의 특정 페이지에서 단어나 문장을 발췌해 이와 연관된 기억을 찾아 기억에 의해 연상되는 이미지를 책 위에 그리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한 작품 11점과 신작 9점 등의 북 드로잉(Book Drawing) 시리즈를 선보이며, 컬러링 월 프로젝트(Colouring Wall Project)는 3개월 간 관객참여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보다, 만들다, 칠하다.』展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의정부미술도서관 1층 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의정부미술도서관 3층 프로그램실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작가 키트를 운영한다. 또한 전시 해설은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코로나19 지역 전파 방지를 위해, 전시관 내부 동시 관람 인원을 최대 15명으로 제한한다.

한영기/기자

대구시 지역 우수 출판콘텐츠 원스톱 지원, 10편 출간눈길

지역 출판산업 선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했던 '지역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선정작 10편이 10월 출간을 완료하고 독자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근간이 되는 우수 출판콘텐츠 발굴·지원을 위해 5년째 진행된 본 지원사업은 그간 32편의 도서 제작을 지원했다. 2020년부터 저작활동부터 출판, 유통,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 출판산업 성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원 편수를 10편으로 확대해 추진했다. 지역 출판사와 작가를 대상으로 4 ~ 5월 응모작을 지원받았으며,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5개 분야에서 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5월 진행된 심사에서 시장성, 우수성, 집필의도 등을 기준으로 4개 분야 총 10편을 선정해 작가 저작상금 편당 2백만원, 출판사 제작지원금 각 5백만원 및 선정작 중 3개 업체에 대해 마케팅지원금 등 총 2천2백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출판콘텐츠는 인문교양 부문의 '글쓰기 인문학 10강'(양선규, 도서출판 소소담담), '내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을까?'(윤슬, 담다), '말하는 건축, 침묵하는 건축'(최상대, 뜻밖에), '명화로 보는 꽃과 나무 이야기'(이광만, 나무와문화연구소) 4편과

문학부문 '당신 별은 어디 있나요'(정춘자, 도서출판 그루), '봄햇살 목욕탕'(권영희, 도서출판 빨강머리앤), '용들의 시간'(노정완, 도서출판 소소담담) 3편,

아동부문 '부엉이를 만났다'(임창아, 도서출판 학이사), '조선의 배이거리'(정종영, 부카플러스), '할매요, 그러 참말이가'(심후섭, 부카플러스) 3편 등 총 10편이다.

특히, 지역 출판의 오랜 약점으로 지적된 유통·마케팅 방면을 보완하기 위해 10월경 도서출간과 함께 3개 출판사에는 마케팅까지 지원해 지역 문학인들의 작품과 출판물들이 알려지고 지역 독서문화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10편은 따뜻한 감성과 참신한 주제를 선보여 책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또한 12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1층 서가 및 2층 북카페에 선정작 전시코너를 마련해 도서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2017년 3월 개관해 '출판·인쇄학교 운영', '출판·인쇄 디자인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출판·인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판·인쇄기업 청년인턴 고용지원 사업'과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독서장려를 위한 '대구시민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각각 신설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일상회복 시대, 책 읽는 문화확산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에서 발간된 우수한 출판콘텐츠가 독자분의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판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 지역 출판산업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채/기자

강릉시립미술관 '부드러운 시선展' 즐기러 오세요!

강릉시립미술관은 오는 19일까지 미디어아트에서부터 5명의 작가드르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부드러운 시선'기획전을 진행한다.

1전시실에서는 지구와 달처럼 서로를 끌어 당기지만 닿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표현한 고은채 작가의 'Distance: 달과, 나 그사이'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상연된다.

3전시실에서는 일상의 반복성을 복제와 재생산의 시선으로 담아낸 김성률의 작품과 사라져가는 기억의 감정을 묘사한 이경훈의 작품을 전시한다.

4전시실에서는 한지에 바느질 기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엮은 노신경의 작품과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해체-재구성한 문기전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5전시실에서는 그라데이션 북마크 제작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주말 11시에는 노신경 작가의 바느질 드로잉 기법을 응용한 부드러운 드로잉 체험, 오후 2시에서 4시에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찾아가는 어린이 과학문화 교실'LED 털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전시기간 방역수칙 준수하에 작가와의 만남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등원/기자

2021 토요애 의령 농특산물 온라인 축제

의령군은 2021 토요애 의령 농특산물 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특별전을 오는 4~5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의령 청소년 문화의 집 앞 도로에서 전개한다.

축제위원회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농특산물 축제에 많은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특별 판매전을 기획하였다.

특별 판매전은 풍년기원 행위예술을 시작으로 기타와 노래,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부대공연과 함께 농·특산물 할인 판매를 비롯하여 그립톡만들기, 승마체험, 치즈만들기 등 선착순으로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하였다.

또한 관상용 호박 포토존을 만들어 추억의 공간을 제공하고, 행사장 방문객에게 선착순으로 가례불고기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강영훈/기자

강원도의 전통 주거방식과 현대미술 만남

조형예술가 권순범의 설치작품전 '글라스하우스-강원도 사라진 옛집을 담다'가 오는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봉평콧등작은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설치작품전은 도내 문화자원 및 지역 이슈를 주제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발굴하는 강원문화재단'강원작품개발지원사업-강원다운' 2년차 결과물로 강원도의 전통 주거방식인 너와, 뒤틀집 등 전통가옥형태와 구조적인 특성들을 현대미술로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2000년 강원도로 이주 후 다양한 설치작품을 선보여 온 그는 '공간드로잉'연작 이후 2014년부터 직접 설계한 10여개의 건축물을 통해 건축자료와 입체적인 표현방법을 접목하고 자연적인 재료(나무, 돌)와 현대적인 재료(철, 유리)를 조합하여 건축유리조형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형태를 탄생시켰다.

이번 설치작품전에서 만날 수 있는 글라스하우스는 모듈화된 건축적 구조 속에서 빛과 공간에 대한 해석된 이동전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야외 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의 변화와 조형 공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건축 조형물이다.

특히 건축과 미술의 만남, 현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절제미에 다양한 평면 유리에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회화작업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의 결합을 만날 수 있다.

조형예술가 권순범은 "글라스하우스를 통해 강원도의 전통가옥을 미학적 시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사라져가는 전통가옥에 대한 정신적 전통계승의 필요성을 알리고 강원 도민과 자연의 공존, 강원도가 추구하는 평화의 한 단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민들과 함께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역의 낙후된 문화시설에 설치전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평창 KTX역사 내 전시장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평창군-찾아가는 릴레이전시 'GLASS PAINTING-유리속으로'를 통해 권순범의 건축유리조형 작업인 글라스 디지털 프린팅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등원/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안전한 디지털 전환,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 한 해 산업계 종사자들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2021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2일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하였다.

'안전한 디지털 전환,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합니다'를 주제로 정보보호 산·학·연이 함께 모여 '디지털뉴딜', '케이(K)-사이버방역' 등 2021년 정보보호 산업계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정보보호 대상(3점)·공로상(1점)·사이버보안 도전잇기(챌린지) 우승 상장(1점) 및 유공자 표창(20점)을 수여하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정보보호산업 전망 학술회의',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 개발 사업 성과공유회 및 발표회',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정보보호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산업 전망 학술회의'에서는 하나은행과 한국중부발전, 이스트시큐리티가 정보보호 모범 실천사례를 발표하고,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김용대 교수가 각각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정보보호', '디지털 대전환과 융합보안'을 주제로 발표하여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서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 개발 사업 성과공유회 및 발표회'에서는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발된 5개 기업이 ▲ 인공지능 기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인피니그루) ▲ 통합특성 기반 차세대 인공지능 악성코드 탐지기술(시큐어링크) ▲ 인공지능기반의 위협 분류 및 탐지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SIEM 솔루션(윈스) ▲ SOAR 체계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자동분류 시스템(씨티아이랩), ▲ 인공지능기반 영상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디비엔텍) 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인공지능과 보안의 융합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신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비대면 의료·교육·근무, 온라인유통 등 비대면 서비스에 신원인증, 전자서명, 인공지능취약점도구,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고신뢰형 서비스로 개선한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 및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새 일상(뉴-노멀) 시대를 노린 사이버범죄가 국민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보호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수원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크라우드펀딩 지원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위한 크라우드펀딩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12월 10일까지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을 진행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청 주변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을 지원한다.

크라우드펀딩은 '후원형'과 '대출형'이 있는데, '후원형' 펀딩에 참여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출형' 펀딩에 참여하면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후원물품을 받을 수 있다.

후원형 프로젝트는 ▲복지아동들과 함께하는 음악 공연 ▲지친 마음을 토닥토닥 달래주는 치유제 ▲일상 속 멘탈 관리 습관 만들기, 놀면서 힐링하자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수원시민 해맞이 축제 ▲우리동네 집수리 공임수리 ▲감정치유 프로젝트 등 6개다.

대출형 프로젝트는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 로컬베이커리', '플라스틱 쓰레기, 도시의 마스코트로 태어나다' 등 2개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2021 수원시 크라우드 펀딩사업' 웹페이지에서, 대출형은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상권 크라우드펀딩' 웹페이지 에서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지역 청년상인·남문로데오시장 상인회와 함께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경기도청 주변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고, 향교로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충청북도 단양군 석회신소재산업의 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는 2일(13시30분), 단양군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 단양군,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단양군의 석회신소재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북도와 단양군은 자금을 지원하여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 분석·측정 장비를 확충한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연구 장비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며,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저탄소·친환경 제품 성능평가 역량을 강화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그 외에도 기업의 생산 및 기술 애로 해소와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북도와 단양군은 이번 협약으로 도내 석회신소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금년 2월 11개 시군의 산업환경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시군 주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산업거점 인프라 조성을 포함해 기업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산업육성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도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빠르게 변화하는 각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 지원기반 확보와 생산·기술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본 사업은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을 중심으로 시군 산업경쟁력 조기 확보의 핵심기반인 지원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장비확충과 기술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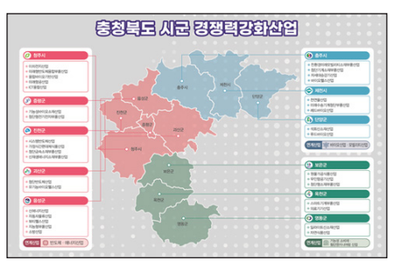
장비확충은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화 단계의 장비활용 애로해소, 하이테크 기술 대응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구축과 성능개선을 지원한다.

기술지원은 시제품제작, 시험평가·분석·인증, 재료비, 장비활용 사용료 등 구축된 장비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음성군 극동대에 구축하는 뷰티헬스솔루션센터를 시작으로, 단양군 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 저탄소 친환경 제품 성능평가 장비를 고도화함으로써 도내 경쟁력강화산업의 기반이 더욱 탄탄히 다져질 전망이다.

충북도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은"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탄소중립 등 세계적인 산업환경이 지각변동 중"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단양군에 석회신소재 산업의 인프라가 한층 확충될 것이며, 2022년에도 인프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광명시, 이케아와 함께 업사이클 제품 70개 기부

8개소에 가구 20점, 가방 50개 등 업사이클 제품 총 70개 기부

광명시는 2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이케아와 함께하는 업사이클 상생기부 프로젝트' 기부식을 열었다.

시는 이날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맞춤 제작한 업사이클 가구 20점과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 단체 1개소에 업사이클 가방 50개를 전달했다.

'이케아와 함께하는 업사이클 상생기부 프로젝트'는 광명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와 이케아 광명점,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2018년부터 3자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이다. 매장 전시, 반품 등의 이유로 판매가 어려워진 이케아 가구를 지역 작가들이 수리하고 업사이클 가구로 바꿔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한다.

가구 업사이클 작업에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4기 입주 작가 주상현씨와 목공 동아리 '세모나(세상의 모든 나무)' 등 지역 작가들과 이케아 광명점 김상현 디자이너가 함께했다. 올해는 특히 목공 재능을 보유한 '업사이클 시민참여단'이 재능 기부로 제작 과정에 동참했고,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 '홍익기술'도 가구 마감 작업에 UV 항균 코팅 기술을 지원했다.

가구 뿐 아니라 이케아에서 제공한 폐 의류의 업사이클 활동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올해 초 이케아 직원 유니폼 디자인이 교체되면서 폐기할 예정이었던 유니폼 1톤 가량을 이케아 측에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입주기업과 작가들에게 제공하여 업사이클 제품과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업사이클 브랜드 '헤르미(Hermi)'에서 폐 유니폼 업사이클 가방을 제작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판매 수익의 1%와 제품 50개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작가들이 제작한 폐 유니폼 업사이클 아트 작품 2점도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장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 전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입주기업과 시민참여단이 함께해 더 풍성한 기부가 되었다"며, "4년째 꾸준히 사업을 추진한 노하우가 축적되며,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업사이클 사업을 확대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부식에 참석한 이케아 광명점 이주연 부점장은 "매장에서 버려질 위기에 처했던 제품들이 아티스트들의 손을 거치며 멋진 업사이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보니 무척 놀랍고 기쁘다"며, "지역 내 자원 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광명시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케아와 함께하는 업사이클 상생기부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 33개소에 업사이클 제품 총 230개(가구 80점, 가방 150개)를 기부했다. 2020년 기부처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했으며, 응답자 100%가 사업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경주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디에스시와 국내 복귀 MOU 체결

경주로 국내 복귀 협약, 1100억원 투자해 생산시설과 물류단지 등 조성, 50여명 일자리 창출

경주시와 경북도, 경주시의회는 2일 ㈜디에스시와 투자금액 1100억원, 신규 일자리 50명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리쇼어링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체결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조희선 ㈜디에스시 대표, 이동협·최덕규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디에스시는 2024년까지 경주 문산2일반산업단지 내 2만 7000㎡ 부지에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인근 9만 7000㎡ 부지에는 2026년까지 물류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 공급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디에스시가 경주로 복귀하게 된 것은 주요 거래처가 울산지역에 집중돼 있고, 부품 납품업체의 다수가 경주 외동읍에 위치해 물류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민선7기 경주시가 추진중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와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등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주요 요인이다.

아울러 ㈜디에스시는 경주시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미래자동차용 스마트캐빈 핵심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공동 R&D 협력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시기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준 조희선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자동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기업들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국내 복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운전자금, 각종 세제감면, 기숙사 임차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상길/기자

안성시, 중소기업 온택트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화상상담실 구축

안성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안성시 한경대학교 소재)는 안성시 중소기업 온택트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화상상담실을 지난 11월말 구축 완료하고 12월부터 시범 운영,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화상상담실 2개와 대기실 1개로 구성돼 있으며, 방음시설과 화상회의에 필요한 최신 화상상담 장비를 갖췄다.

화상상담실은 비즈니스를 위한 원격 상담, 간담회,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전시회나 수출 상담 시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안성시 수출기업인협회 회원인 A 대표는 "화상상담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가 잘 구축돼 있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접근성도 좋아 앞으로 많이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업별 온라인 사후 간담회 및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한 B차장은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돼 이동 시간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 지원이나 비대면 강연, 교육, 웹세미나 등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전남도, 글로벌 e-모빌리티 중심지 도약 박차

2일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방안 기획연구 최종보고회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문화와 개인별 이동수단 확산 등 모빌리티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모빌리티산업의 체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전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주재로 김장오 영광부군수,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방안 기획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영광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 인프라 집적화와 관련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큰 틀의 개념을 담은 추진전략과 정책 기본 구상은 부족했다.

이번 기획연구는 전남을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허브로 확고히 자리매김토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기획연구 결과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 활성화방안 추진전략으로 ▲연구개발 체계 확립 ▲수요시장 활성화 ▲영광군 대마산단 중심 생태계 구축 ▲제도개선·인프라 조성 등 4대 중점분야 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양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수요 확대, 종합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법령 규제 완화 등 11대 전략과 67개 세부 사업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전남도의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세부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번 기획연구 결과와 함께 자문위원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사업별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e-모빌리티 강소기업 집중 육성, 국내 및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 국가 e-모빌리티산업 정책 반영 건의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e-모빌리티 관련 기업 100개 유치, 일자리 창출 2천 명, 연매출 4천억 원 달성을 위해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 등 총 15개 사업에 국비 1천991억 원을 포함 총 3천462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안정성 평가기반 구축 등 7개 사업을 위해 2천187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도를 영광 중심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e-모빌리티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번 기획연구를 토대로 세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e-모빌리티산업뿐만 아니라 한국형 뉴딜 융합 사업모델 개발 등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남구,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요양병원 · 요양시설 대상 특별 합동점검 실시

대구 남구는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000명대를 넘어선 지난 12월 1일,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예방을 위해 부구청장 주재로 시설 관련부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구청에서는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빈틈없는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요양병원 9개소, 요양시설 26개소 등 총 41개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남구보건소와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시하며, 시설 내 출입자(면회객) 명부 작성 등 방문자 관리, 비접촉 면회공간 마련 및 관리실태, 접촉면회 요건 준수 여부, 종사자(간병인 포함) 주1회 PCR 선제검사 및 신규입소자 PCR 선제검사 실시 여부, 마스크 쓰기, 종사자 업무 동선 최소화 여부 등 시설 방역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접종완료 후 4개월이 도래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추가접종 상황 확인과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요양병원 등 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면회객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추가접종 또한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동호/기자

부천시,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 현장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시 건축허가과, 365안전센터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

부천시는 국지적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관내 건축공사현장 98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동절기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 지반이 얼어, 지하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붕괴, 화재, 미끄럼,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특히 동절기에는 추위로 인해 신체가 둔감해지고 현장주변 장애물 등 사물을 살피기 어려워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기가 쉽다.

시는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2월 중반까지 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축현장에 약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50억 이상 대형공사현장 13개소, 소규모 건축현장 85개소 등 총 9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시, 건축허가과, 365안전센터,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광역동은 동별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지하터파기 현장 흙막이 안전성 및 미끄럼 방지, 화기, 인화물질 관리 등을 집중 확인하며, 폭설 시 설하중(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한 가시설물 안전과 현장 기술자 상주 근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위험 징후가 발견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민 신고 채널도 개방할 방침이다.

한상휘 시 주택국장은 "동절기에는 국지적 폭설, 한파에 대비하여 현장붕괴, 화재 등 현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예방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민들도 생활공간 주변 동절기 위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상징후 발견 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나 부천시청 건축허가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용민/기자

서울시, 일본산 참돔, 중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적발

수산물 취급 음식점, 프랜차이즈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 76곳 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산물 취급 330㎡ 이상 대형음식점, 프랜차이즈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 76개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일환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인기 횟감인 참돔 등의 중점적인 점검과 더불어 수산물 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고자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문 배부도 병행했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원산지를 미표시 업소는 2개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소는 1개소이다.

참돔 1건과 보리굴비 1건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1개 업소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로 입건후 수사중에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임 에도 불구, 대형마트와 일식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에 입점한 업체는 중국산 보리굴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대형 일식 업소는 진열 중인 수족관에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수산물 특성상 국내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혼동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동표시를 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원산지 혼동표시로 적발된 대형음식점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한 이유가 수급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8개월간 일본산 참돔을 취급하고 있었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 오수유입 차단 공사 현장점검

조천천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 점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에서는 1일 진해하수센터에서 진해구 관내 하천 유입 오염원 차단공사 일환으로 시행하는 조천천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2019년부터 오수관로 노후화 및 우·오수 미분류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하천유입 오염원 차단 공사 중 신이천 및 경화동 조천천 일원에 시행중인 사업장으로 12월 착공하여 중순경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정비구간은 도심 주택가를 관통하는 하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 악화 및 악취를 차단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과 마산만 수질을 개선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은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는 하천유입 오염원 차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진해구 관내 하천의 오수유입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차단(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최소화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보다 더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및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6~17일 2주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내 공공시설,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포함)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동행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반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라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금지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민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경기도 외투단지관리센터, 소방·위험물 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 실시

GH가 수탁운영하는 경기도 외국인 투자단지 관리센터는 지난 11월 입주기업을 위한 소방·위험물 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내의 제조업체, 공장시설 등에서 동절기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 외투센터는 화재·폭발 등의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2019년부터 상·하반기 '안전점검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1월 진행된 이번 컨설팅서비스에서는 경기도 외투기업 중 희망업체를 선정, 소방·위험물 등의 재해 발생가능성을 진단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했다.주요내용은 ▶제조시설 소방설비 및(특수소화설비) 방재계획 점검 ▶고압, 위험물설비 및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및 방호조치 안내 ▶소화설비 및 위험물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경기도 외투센터는 향후 연말 동절기에 대비해 화재 및 가스 누출부문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인 컨설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GH(사장 대행 안태준)는 "외투단지 입주기업들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점검은 사업주들의 동참과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현장 맞춤식의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해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다. GH가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중이며, 경기도 내 총 8개 외국인투자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 실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지역 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지도·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일반가정에 한해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불법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수관 막힘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평구는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를 지도·점검하고 문자알림서비스 등의 다양한 홍보방식을 통해 구민들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불법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제품 사용 시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판매·사용이 가능한 오물분쇄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며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남/기자

경상남도, 겨울철 화재 대비 야영장 안전 점검 실시

화재 예방 시설 설치 여부 중점 점검해 예방 및 대응 체계 점검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여행이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캠핑 열풍이 불어 야영장을 찾는 야영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행 활성화 및 야영(캠핑) 유행에 맞춰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재난관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글램핑, 야영장 트레일러(카라반)를 설치한 등록 야영장 및 일반야영장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화재 및 질식 등 사고 위험이 큰 겨울철을 맞아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시설의 안전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비치 여부와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기준 준수여부 등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내 화재 예방 시설, 그리고 샤워, 세면 시설의 소독과 이불 등 침구의 세탁 관리 상태 등의 위생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텐트 내 적정 전기용량(600W 이하) 및 규정에 맞는 가스용기(13kg) 사용 안내 여부, 100㎡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 설치 여부, 폭죽과 풍등 등 화재 위험 물품 판매 여부와 잔불처리시설 구비 여부 확인을 통하여 야영장 내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준수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야영장 내 공동시설 일 1회 이상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야영장 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한다.

한편,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중 미등록 불법야영장이 적발되면 안전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토록 하고, 야영장 등록 유도를 추진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심상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겨울철 경남을 찾는 야영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되었다"면서, "야영객들에게도 미인증 전기제품 및 화기용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점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화순군, 지역자활센터 동절기 안전점검 나서

화순군이 내년 1월까지 화순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에 나선다.

화순군은 내년 1월 14일까지 지역자활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 준수 현황 ▲폭설, 혹한기 대비 재난대응 대책 수립 여부 ▲급식 위생관리 현황▲시설물 안전관리·안전관리 대책 수립 현황 ▲소방 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 예방·대응 체계 수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지역자활센터의 자체 점검 결과 보고 후 관련 부서의 현장 점검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조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자활센터 사무실과 자활 참여자가 근무하는 작업장 등을 돌아보며 현행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독보적 분위기의 보컬리스트 '선우정아', 멜랑꼴리아 OST 전격 참여!

첫 회 엔딩 장식! 시청자 문의 쇄도했던 OST 드디어 발매!!

뮤지션 선우정아가 배우 임수정, 이도현이 주연으로 나선 tvN 15주년 특별기획 수목드라마 '멜랑꼴리아'(극본 김지운 연출 김상협)의 두 번째 OST를 부른다.

2일 '멜랑꼴리아' OST 제작사 Stone Music Entertainment에 따르면 선우정아는 '멜랑꼴리아' OST Part 2 '달링'(Darling)의 가창자로 라인업에 합류, 드라마의 인기 견인에 나선다.

'멜랑꼴리아'의 두 번째 OST인 '달링'은 '멜랑꼴리아' 1부 및 어제 방영된 7부 엔딩에 삽입되며 다수 시청자들의 문의를 받았던 바 있는 노래로, 극의 감정선을 선우정아의 목소리를 통해 매혹적으로 표현하며 시청자의 몰입을 돕는다.

이번 곡 '달링'은 몽환적인 피아노 연주와 미묘한 화성이 자아내는 따스한 분위기 속에 곡 후반부를 장식하는 스캣(scat)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듣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선우정아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음악을 구사하는 대중음악 뮤지션으로 개성 넘치는 보컬리스트이기도 하며, 진한 감정선을 담고 있는 목소리를 특징으로 한다.

지난 2006년 '매스티지'(Masstige)로 데뷔한 후 자신의 음악은 물론 이문세, 박정현, 아이유, 이하이 등의 뮤지션과 협업하며 입지를 넓혀왔다. 또한 최근 개봉한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에는 음악감독으로 참여하며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다.

차분하게 내려앉은 선율이 기분 좋게 다가오는 곡인 '달링'은 멜로디 안에서 살아있는 듯 자유롭게 춤을 추는 선우정아의 디테일 가득한 보컬을 만끽할 수 있는 곡이 될 전망이다.

선우정아가 부른 멜랑꼴리아 OST Part 2 '달링'은 오늘(2일) 오후 6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한편 tvN 15주년 특별기획 수목드라마 '멜랑꼴리아'는 특혜 비리의 온상인 한 사립고를 배경으로 수학교사와 수학 천재의 통념과 편견을 뛰어넘는, 수학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로 임수정, 이도현, 진경 등이 출연한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멜랑꼴리아' OST Part 2 'Darling' 발매 (사진 = Stone Music Entertainment)

'여고추리반2', 미스터리 자극 컴백 포스터 공개

티빙은 오는 12월 31일 첫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여고추리반2'(연출 정종연, 임수정) 컴백 포스터와 1차 티저 예고편을 1일 동시에 공개했다.

새로운 교복을 입고 등교 준비를 마친 추리반이 마주할 사건은 무엇일지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다.

'여고추리반2'는 새라여자고등학교에서 전학 간 다섯 명의 추리반 학생들이 더욱 거대한 사건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어드벤처다.

역대급 인기를 끌었던 시즌1 보다 확장된 세계관과 스케일, 탄탄해진 스토리를 장착하고 미스터리 어드벤처의 쾌감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장르 예능의 대가 정종연 PD, 완벽한 추리력과 케미스트리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박지윤, 장도연, 재재, 비비, 최예나의 재회는 그 자체만으로 팬들을 설레게 만든다.

모두의 기대 속에 공개된 컴백 포스터는 '숨멎'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며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교실, 나란히 앉아있는 학생들 사이 빈자리가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다섯 명의 추리반 멤버들의 뒷모습에 더해진 '사라진 내 친구는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문구가 새로운 학교에서 벌어질 사건에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함께 공개된 1차 티저 예고편에서는 추리를 시작한 멤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차례로 캐비닛 문을 여는 박지윤, 장도연, 재재, 비비, 최예나는 학교의 비밀들과 마주한다. 책 사이에 끼워진 의문의 카드를 발견한 박지윤의 눈빛에 동요가 일고, 주위를 살피며 쪽지 하나를 캐비닛에 넣는 장도연의 모습도 흥미롭다.

이 쪽지를 이어받은 재재는 날카로운 시선을 빛낸다. 비비가 발견한 사진들은 흩어진 진실의 단서를 암시하며 추리력을 자극하고, 최예나에게 도착한 메시지도 궁금증을 더한다. 더 거대해진 사건과 마주하게 될 추리반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컴백 포스터와 1차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포스터 분위기 무엇? 벌써 궁금하다", "사라진 친구야 누구니? 새 학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새로운 교복 입은 추리반 멤버들 보니 심장이 두근거린다", "캐비닛 안에 담긴 증거 무슨 의미? 벌써 추리력 자극하네", "이 멤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니 너무 좋다", "클래스 다른 미스터리 어드벤처의 귀환은 못 참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방학을 끝내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태세를 마친 티빙 오리지널 '여고추리반2'는 오는 12월 31일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현유주/기자

'도장깨기' 장윤정, 코칭 난이도 상향 조정!

이상한 노래 고치는 '도장 클리닉' 특집 개최

'장윤정의 도장깨기' 장윤정이 노래 코칭 난이도를 상향 조정, '이상한 노래' 고치기에 나선다.

LG헬로비전 오리지널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이하 '도장깨기')가 오는 12월 2일 17회 방송을 앞둔 가운데, 다가오는 방송에서는 '도장패밀리' 장윤정-도경완-곽지은-해수-장지원 밴드가 경북 지역을 찾는다.

특히 이날 방송은 장윤정이 지역의 숨은 노래 고수들을 만나, 그들의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존의 원포인트 레슨에서 한단계 진화해 '도장 클리닉 : 제 노래 이상한가요?'라는 부제를 달고 독특한 가창력의 소유자들을 만난다고 해 관심이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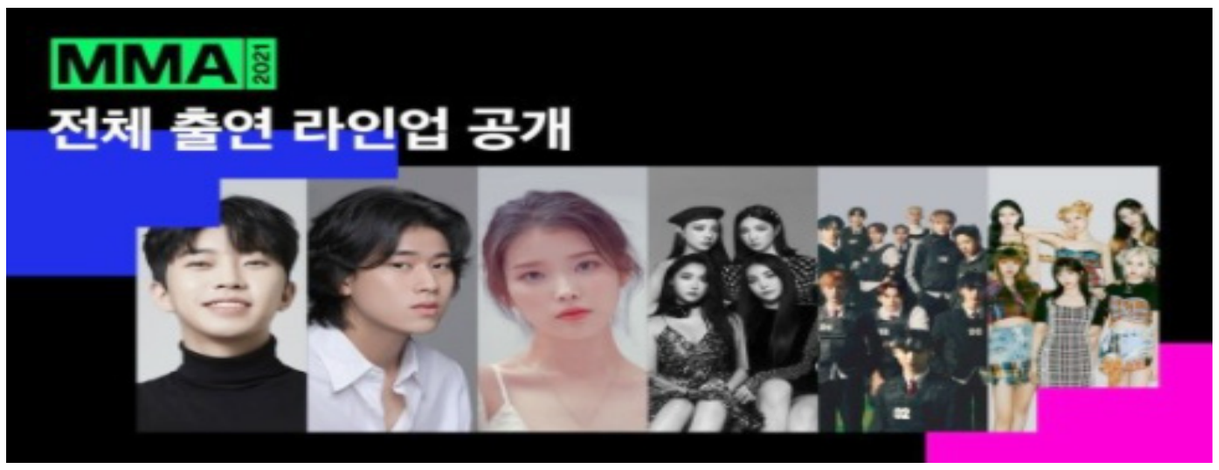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장윤정은 '도장 클리닉' 특집을 맞이해 "제작진이 나를 시험한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또한 장윤정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트로트 일타강사답게, 본격적인 출연자들과의 만남에 앞서 의미심장한 예언을 해 주변 모두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다. 장윤정은 "오늘 오실 분들 공통점을 예언한다. 다들 어려운 곡, 본인한테 안 어울리는 곡 가지고 나오실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첫 번째로 등장한 남성 출연자가 가수 강민주의 '욕심 없는 여자'를 선곡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이날 특집에는 레전드급 캐릭터를 가진 캠핑메이트들이 대거 출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후문이다. 영화 '워낭소리' 주인공의 친아들이자 가수 가족의 미운오리 새끼로 통하는 '비트의 마술사'부터 시작해, 가수가 되고 싶어 파혼까지 감행한 '흥신끼왕' 레크레이션 전문 MC, 나아가 '노래 잘 부른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현직 가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출연자들이 총출동한 것. 이들과의 만남에 장윤정은 "오기 생기는데?"를 연발하며 극한 코칭을 펼쳤다고 해 본 방송에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

장윤정이 기획하고 도경완이 함께하는 본격 도장부부 프로젝트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는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트로트 수제자 곽지은-해수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전국의 숨은 노래 실력자를 찾아가 족집게 레슨을 선사하는 캠핑 버라이어티. 오는 12월 2일 오후 5시, 9시에 LG헬로비전 지역채널 25번을 통해 17회가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D-2 MMA2021 최종 라인업 공개, 음원과 퍼포먼스 강자 총집결!



브레이브걸스-스테이씨 추가 라인업 합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이진수, 김성수)의 뮤직플랫폼 멜론(Melon)이 개최하는 MMA2021(멜론뮤직어워드2021)에 차트 상위권에 오른 음원강자들과 대표 퍼포먼스 아이돌까지 2021년 한국 가요계를 이끈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2일 멜론은 "오는 4일 오후 6시 개막하는 MMA2021에 아이유, 이무진, 헤이즈, 임영웅, MSG워너비(M.O.M),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 더보이즈, 엔하이픈, 브레이브걸스, 스테이씨가 출연해 K팝 축제의 장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아이유, 이무진, 헤이즈, 임영웅, MSG워너비(M.O.M),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더보이즈, 엔하이픈 외에 올 한해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차트를 휩쓸었던 화제의 주인공 브레이브걸스와 'ASAP', '색안경' 등으로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가능성을 인정 받은 실력파 신인 스테이씨가 라인업에 합류하면서 보다 풍성한 공연이 예고됐다.

이번 MMA2021은 올해 멜론차트에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 음원 강자들이 총출동한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먼저 아이유가 2017년 MMA 이후 4년 만에 다시 한 번 MMA2021에 올라 신곡 '스트로베리 문'(strawberry moon)의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스트로베리 문'은 지난 10월 19일 공개와 동시에 멜론 TOP100 1위에 오른바 있다.

또한 올해 5월 발매한 자작곡 '신호등'으로 멜론차트에서 무려 26회나 1위를 기록한 이무진, 발표하는 곡마다 독보적인 음색과 트렌디한 감성으로 압도적 음원파워를 자랑하는 헤이즈, 신곡은 물론 드라마 OST로도 차트 최상위권에 오른 임영웅 역시 한 해를 되돌아 보는 의미를 담은 뜻깊은 퍼포먼스로 시청자와 소통에 나선다.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음악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의 M.O.M 멤버 지석진, KCM, 박재정, 원슈타인도 반 년 만에 MMA2021에서 재회해 화제의 곡 '바라만 본다' 무대를 꾸민다.

K팝 아이돌 4세대 아이콘 더보이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은 MMA2021에서 자존심을 건 퍼포먼스 삼파전을 펼친다.

매년 레전드 무대를 만들어 온 MMA의 무대 기술이 더해져 듣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하는 무대가 만들어 질 전망이다.

본식에 앞서 12월 4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MMA2021 프리쇼 'MMA - 더 레코드'(MMA - the record)가 진행된다.

박선영 아나운서와 개그맨 이용진이 사회자로 나선 'MMA - 더 레코드'는 올해 멜론차트를 되짚어 보고 MMA2021 TOP10 발표 및 수상자 예측, 퍼포먼스 스포일러를 하는 시간 등으로 꾸려진다.

이 외에 역대 멜론차트 속 깜짝 놀랄 만한 대기록, 포토월 실시간 중계 등을 통해 축제 열기를 더한다.

MMA2021과 MMA2021 프리쇼 'MMA - 더 레코드'는 국내의 경우 멜론 앱과 웹의 MMA 페이지, 카카오TV의 멜론뮤직어워드2021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유튜브 1theK(원더케이) 채널, MUSIC ON! TV(일본), dTV(일본), JOOX(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MY MUSIC(대만)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김효진/기자

'국민가수' 김영근, 12월 2일 정오 신곡 '마침표' 발매

'국민 가수'에서 잔잔한 감성과 가슴을 울리는 호소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가수 김영근이 오는 2일 정오, 신곡 '마침표'를 발표한다.

이번 곡은 잔잔한 피아노의 선율 위에 쓸쓸하고 초연한 멜로디가 펼쳐지며, 김영근만의 깊은 울림을 담은 발라드 곡이다.

'너무 아픈 사랑도 과연 사랑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테마로 한 곡이며, 사랑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담담하게 관계의 끝을 말해야 하는 서글픈 마음을 표현했다.

아울러, 김영근만의 따뜻하고도 쓸쓸한 감성으로 가을의 마지막과 초겨울이 시작되는 계절감도 함께 느낄 수 있다.

EXO, NCT, HYNN(박혜원) 등의 히트곡들을 프로듀싱하며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싱어송라이터 니브(NIve)가 김영근을 위해 이번 곡의 노랫말과 작곡, 프로듀싱을 선물했다.

김영근은 M.net '슈퍼스타 K' 마지막 시즌에 출연하여 '지리산 소울'이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영혼을 울리는 깊은 감성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나, 우승 후에 쉽지 않은 가수 활동을 이어가던 중 TV조선 '내일은 국민 가수'에 전격 출연하여 가수로서 새로운 출발의 다짐을 알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향한 간절함을 담아 진심과 눈물로 노래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았다.

김영근의 음악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 될 신곡 '마침표'는 12월 2일 정오, 온라인 음원 사이트들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영화'언힐러' 12월 2일메가박스 개봉 동시 IPTV&VOD 서비스 오픈!

영화 '언더 다크니스' 감독의 신작 SF 초자연 스릴러 '언힐러'가 바로 오늘 메가박스 개봉과 함께 IPTV, 케이블 TV VOD 극장 동시 상영을 시작한다.

영화 '언힐러'는 왕따를 당하던 켈리가 우연한 기회에 신비한 능력을 얻은 후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향해 핏빛 복수를 하는 SF 초능력 스릴러.

영화는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9/11'의 마틴 귀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9/11' '언더 다크니스'를 통해 인간 심리를 섬세하게 담아내는 연출력을 인정받은 마틴 귀귀 감독은 신작'언힐러'로 루저로 무시당하던 한 소년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되면서 이성을 잃고 피의 복수를 펼치는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감독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자, 음악 감독, 작곡가, 프로듀서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다방면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그는 이번 작품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진가를 발휘할 예정이다. 빈약하던 몸에서 하루아침에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되는 소년 '켈리'역에는 아역배우로 데뷔 후 작품 활동을 이어온 '엘리야 넬슨'이 맡았다.

CBS 드라마 [일테러게이션], [S.W.A.T.],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등으로 자신만의 배우 스펙트럼을 넓혀오던 엘리야 넬슨은 〈언힐러〉를 통해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병약한 모습과 이성을 잃은 악역을 선보이며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챈들러 국제 영화제, 페라라 영화제, 뉴욕 국제 영화제에서 베스트 배우상을 수상하며 유수의 영화제의 호평을 받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유주/기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위한’ KBO Next-Level Training Camp

1차 훈련 대상은 고교 입학 예정 중3 40명, 리틀야구 대표 44명 유망 선수로 KBSA와 리틀야구연맹이 선발

KBO(총재 정지택)는 지난 9월에 발표했던 한국 야구의 미래인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2022 KBO Next-Level Training Camp’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내년 1월과 2월, 2회에 걸쳐 리틀야구연맹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선발한 리틀야구 대표 선수 44명, 고교 입학 예정 중3 우수 선수 40명을 대상으로 합숙 훈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술 습득 및 훈련 효과가 높은 유소년 시기 유망 선수들이 우수한 코칭과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고등팀 훈련에 모두 합류하지 못하고 공백기를 갖고 있는 고교 입학 예정 선수들의 훈련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프로 출신 지도자들이 각 포지션별 지도자로 참가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본적인 기술지도와 함께 각종 데이터 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이를 위해 3D 모션캡쳐 시스템, 지면반력기 등 동작 분석 장비들을 활용한 바이오메카닉스 측정을 통해 운동역학적으로 선수 개개인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최선의 운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랩소도, 트랙맨, 초고속카메라 등 첨단 트래킹 장비를 통해 선수들의 투구/타구를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선수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갈 것이다.

또한, KBO 의무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전문 트레이너가 참가해 신체 기능 검사를 통해 선수별 피지컬 데이터를 측정하고 부족한 신체 부위 및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기반한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며, 매일 오전에는 실내에서 성장기 유소년 선수들의 야구에 적합한 신체로의 발달을 위한 피지컬 트레이닝이 진행된다.

더불어, 성장기 선수들에 대한 뉴트리션 진단을 통한 건강한 신체 성장을 유도하고 개인 체질 및 각 포지션에 적합한 신체 형성을 위한 식단 관리와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유소년기부터 운동 선수로서 체질 개선을 위한 뉴트리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인식시킬 생각이다.

그 밖에도 강의를 통해 부상방지, 스포츠영양, 반도핑과 같은 야구선수로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교육을 통해 습득시킬 예정이며, 부정방지, 학교폭력, 성폭력 교육과 같은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시킬 예정이다.

‘2022 KBO Next-Level Training Camp’는 KBO 의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사업으로 KBO는 본 캠프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미래 KBO 리그의 성장동력이 되어 줄 유소년 유망선수 발굴을 위한 첫번째 장으로 삼아 매년 정례화하여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과학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향후 매년 개최 될 캠프에서 측정되는 각종 데이터를 누적시켜 유소년 선수들의 전반적인 기량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모든 유소년 야구 지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 지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립된 훈련 지도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당 지도법이 숙지된 순회코치를 전국의 유소년 야구팀에 파견하고, 지역 거점별 아카데미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유소년 야구팀을 초청하는 등 전체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KBO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KBO는 앞으로도 미래 KBO 리그의 주역이 될 유소년 선수들의 레벨업을 위해 야구 기량 발전은 물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훌륭한 야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전국유소년클럽축구 왕중왕 고성서 가리자

고성군은 오는 12월 4일, 5일 양일간 고성군스포츠타운에서 ‘제1회 KYFA컵 전국유소년축구클럽 왕중왕전’을 개최한다.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유소년축구협회(회장 김명우)가 주최·주관하며, 올해 경북 예천, 경북 김천, 강원 고성, 강원 영월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유소년축구클럽팀 55개 팀이 토너먼트를 통해 연령별 왕중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회 개최 승인을 받고 개최되며,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선수단별 등록선수 외 10명으로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음성 확인 및 백신 접종완료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소년축구선수대회가 줄어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키운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11월 제10회 고성공룡컵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며 유소년 축구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2021 KLPGA 대상 시상식 이모저모

지난 11월 30일(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2021 KLPGA 대상 시상식’이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마무리됐다. 대상, 상금왕, 신인상 등 각종 기록 부문의 수상자를 비롯해 인기상, 특별상, 다승왕 등 수상자로 선정된 총 21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드에서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화려한 모습은 골프 팬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 세계를 향해 스윙하라, SWING THE WORLD ‘2021 KLPGA 대상 시상식’

올 시즌 KLPGA는 선수들의 아름다운 땀과 더불어 KLPGA, 스폰서 및 관계자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29개 대회, 총상금 269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어를 안전하게 마쳤다. 특히, 지난 2020년 전 세계 최초로 골프 투어를 재개한 것에 힘입어 올 시즌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에서도 KLPGA투어가 생중계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에 ‘2021 KLPGA 대상 시상식’은 KLPGA의 슬로건인 ‘SWING THE WORLD’를 활용해 추후 세계로 뻗어 나갈 KLPGA와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콘셉트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 팬과 함께한 KLPGA 역대 최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시상식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수상 선수와 시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열린 ‘KLPGA 대상 시상식’이 올해는 골프 팬과의 소통을 위해 역대 최초로 골프 팬 200명을 화상 참가자로 초청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시상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골프 팬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KLPGA가 처음으로 시도한 하이브리드 시상식은 선수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얻었다. 특히, 인기상을 받은 임희정은 수상 소감을 말한 뒤, LED 스크린을 통해 응원해준 팬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 남는 건 사진뿐,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던 선수들

드레스와 한복, 슈트까지 평소에는 입어볼 수 없던 화려한 의상과 함께 시상식에 걸맞은 헤어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으로 들뜬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선수들은 시상식장 로비에 전시된 자신의 우승 사진 앞에서 즐거운 셀카 타임을 즐겼고, 한껏 멋을 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3, 4명씩 모여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띄었다.

▲ 시상식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린 사이먼 도미닉의 환상적인 퍼포먼스

‘2021 KLPGA 대상 시상식’ 축하 공연은 대한민국 대표 래퍼 사이먼 도미닉(본명 정기석)이 맡아 시상식 시작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 사이먼 도미닉은 주어진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했고, 선수들과 시상식을 시청하는 골프 팬들까지 사로잡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선수들은 손을 올리고 리듬을 맞추거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이먼 도미닉의 무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화려한 시상식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켈피TV(KLPGA TV)에서!

KLPGA의 영상 콘텐츠 채널 켈피TV(KLPGA TV)도 바쁘게 움직였다. 선수들의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골프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KLPGA는 켈피TV를 통해 유튜브와 네이버TV,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선수들의 색다른 모습과 ‘2021 KLPGA 대상 시상식’ 무대 뒤에서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을 담은 켈피TV의 새로운 콘텐츠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KPGA, ㈜더픽컴퍼니와 공식 파트너 협약 체결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KPGA)와 ㈜더픽컴퍼니(대표이사 정은주, 더픽컴퍼니)가 공식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

1일(수) 경기 성남시 소재 KPGA 빌딩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더픽컴퍼니 정은주 대표, 김진희 홍보이사, 한국프로골프투어(KGT) 김병준 대표이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본 협약을 통해 더픽컴퍼니가 전문 유통중인’에피티크 마스크팩’이 ‘KPGA 공식 지정 마스크팩’으로 선정됐다.

더픽컴퍼니 정은주 대표이사는 “KPGA와의 금번 협약을 통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중들과 가까워 지고 있는 골프 산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며 “상호 협력을 통하여 긍정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GT 김병준 대표이사는 “KPGA와 더픽컴퍼니가 본 협약을 계기로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KPGA와 KPGA 코리안투어에 큰 성원을 보내준 더픽컴퍼니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픽컴퍼니는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고객에게 영감을 주는 솔루션을 제안하며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좋은 제품을 발굴하여 전문적인 유통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현재 제약바이오 전문 기업인 ㈜제테마와 손잡고 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에 이어 홈케어가 가능한 ‘에피티크 마스크팩’의 유통 및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김효진/기자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 대구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

12월 3일 견본주택 개관!

▶ 대구지하철 2호선 내당역·반고개역 더블역세권…편리한 주거여건 '눈길'

▶ 신청사 이전(2026년 예정) 및 서대구 역세권 개발 호재 품어 미래가치 'UP'

▶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 59·84·103㎡ 454세대 중 270세대 일반분양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대구 달서구에서 선보이는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가 12월 3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1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 59·84·103㎡ 총 454세대 규모로 이 중 270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주택형별 세대수는 △전용 59㎡ 14세대 △전용 84㎡A 119세대 △전용 84Bm² 125세대 △전용 103㎡ 12세대다

분양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해당지역에 이어 15일 1순위 기타지역, 16일 2순위 청약접수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 더블역세권 입지 기반 생활·교육·미래가치 多 갖춘 프리미엄 아파트'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예정)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 및 반고개역이 도보권인 더블역세권 단지이다. 이를 통해 범어·수성구청·죽전 등 시 내 주요 도심 곳곳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또, 1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반고개역에서 두 정거장으로 가깝다.탄탄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홈플러스·현대백화점 등 대형 복합시설이 가깝고, 서문시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또, 반경 약 500m 내 내당초등학교를 비롯 구남중학교, 대구보건고등학교 등 전 연령대 학군을 품고 있다.약 51만 평 규모의 '두류공원'과 인접한 데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길을 끈다. 두류공원은 테마파크인 '이월드'를 필두로 야구장과 공연장 등이 위치한 곳으로, 각종 레저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근린공원, 상록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가깝다.

풍부한 호재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 먼저, 대구시청 신청사가 오는 2026년 단지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여러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의 조성을 골자로 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야외에서 집 안 생활 가전을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 등을 도입해 완성도를 더할 계획이다.

한편,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45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1600-0699

박류석/대기자